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33 1983년 1월 18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January 18,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JAN 18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16일 IOC·NOC회의 LA서 개막

남북한대표 대좌

북한 '84 올림픽 참가 계획

(LA지사)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가별 올림픽위원회(NOC)에 참석키위해 LA에 도착한 김유순 북한 IOC위원은 「84년 LA올림픽대회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수단규모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북한팀 참가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6년의 기간이 남아있다」고만 말했다.

북한대표 3명은 12일 하오6시15분 회의장소인 LA 빌트모어호텔의 IOC사무처에 정식 등록했다.

13일 하오3시20분 KAL항공기편으로 LA에 도착한 한국IOC위원인 김택수위원과 정주영 대한체육회회장및 NOC위원장등 관계자들은 16일부터 21일까지 있을 NOC 전체회의에서 북한대표들과 대좌한다.

151개회원국의 약8백명 대표및 옵서버, 그리고 보도진이 참석하는 이번대회에서 한국은 「KOR」로, 북한은 「DPK」로 약칭된다.

북한측대표는 이 회의참가를 통해 경기시설등 제반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72년 뮨헨과 76년 몬트리얼 올림픽에서 대결했다.

남한은 80년 모스코올림픽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항의하는 서방주요국들과 함께 참가하지 않았다.

"단일팀구성 검토 용의"

정주영 KOC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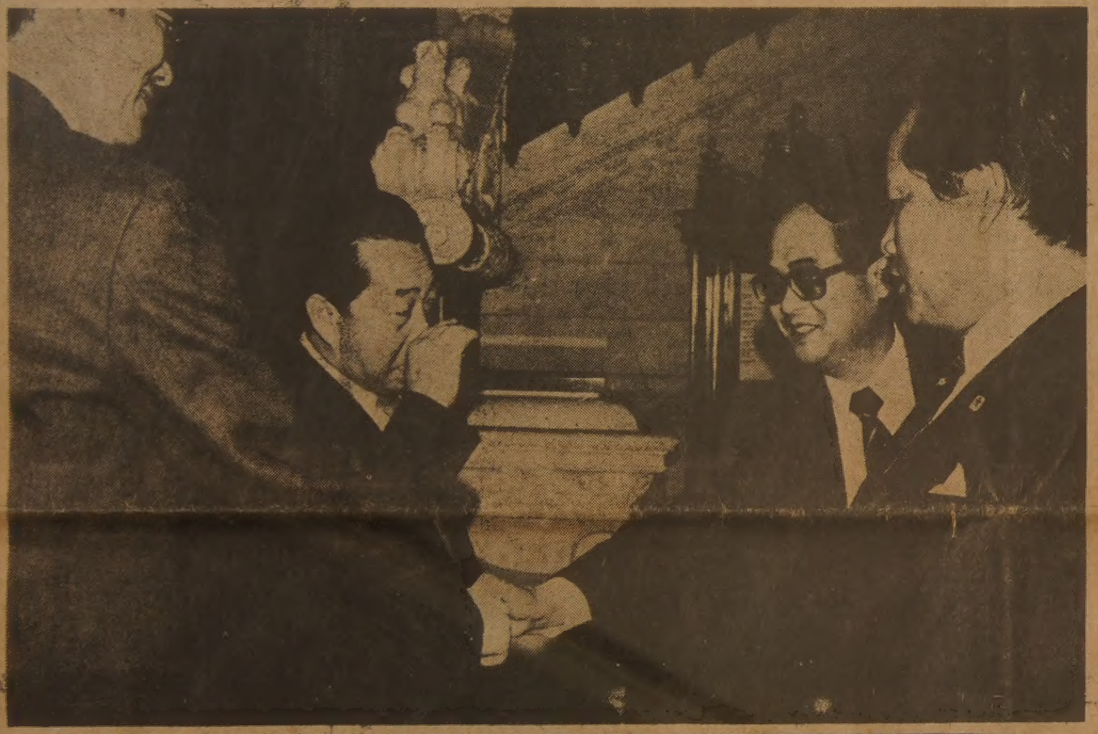
▲정주영 KOC위원장.

정주영대한체육회회장겸 한국올림픽위원회(KOC)위원장은 13일 북한측이 단일팀구성을 제의한다면 이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회장은 남·북한단일팀구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선전적제의는 결코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IOC와 NOC(국가별올림픽위원회)회의참석차 LA에 온 정회장은 남북한단일팀구성은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야만 이룩될수 있는 문제라면서 『무엇보다도 국민적여건이 합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단일팀 구성이 제의만 갖고서 될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면서 『국가적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녕하십니까"…호텔 로비서 「2分 南北對話」

▲『김선생 안녕하십니까』『조선생 안녕하십니까』―13일 밤 9시28분 LA의 빌트모어호텔 로비에서는 진기한 장면이 펼쳐졌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조상호사무총장(오른쪽끝)과 북한의 김유순IOC위원(왼쪽에서 두번째)이 로비에서 마주치자 악수를 나누며 2분간 「남북대화」를 계속했다. 먼저 다가오며 인사를 건넨 사람은 조상호사무총장. 이어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이재홍국제홍보국장(오른쪽서 두번째)이 북한측의 장웅서기(왼쪽 첫번째)와 악수를 교환했다. 조사무총장은 『호텔에서 불편한점이 없으십니까』라고 묻자 북한의 김유순위원은 『별로 없읍니다…. 요즘 서울날씨는 어떻습니까』라며 화제를 기후로 돌렸다. 조사무총장과 김위원은 날씨얘기만 하다가 2분후 헤어졌다. 「남북대화」―그것은 날씨의 범주를 넘을수 없는 숙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혼외자식 양자 가능

초청이민 길 트여

욕 카운티 판결, 수천자녀에 회소식

욕·카운티법원은 최근 남성이 정식결혼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캐나다에 이민 오게하기위해 양자로 삼을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욕·카운티법원의 요셉·쉬드판사는 현재 캐나다시민인 자마이카출신의 한남자가 13세된 그의 딸을 정식 이민이 되게끔 하기위해 양자를 삼을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자마이카인의 딸은 77년 7월 자마이카를 떠나 방문비자로 현재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남자는 하급법원에 그의 딸의 입양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욕·카운티법원에 항소, 이같은 판정을 얻었다.

이같은 판결은 연방이민법에 서자로 간주되어 캐나다의 시민이 된 이들의 아버지로부터 합법적 초청이민이 거부되어온 수천명의 해외거주 자녀들(주로 서인도제국과 중국에 많음)에게 이민자격을 부여할수 있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방이민법의 제한조처는 혼외자식을 둔 어머니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라는 증거는 아버지라는 증거보다 훨씬 쉽게 밝혀지기 때문이다.

지난주 초 연방항소법원은 중국계 토론토시민 연체씨의 둘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온타리오주법에 따라 아버지의 초청으로 캐나다에 이민올수 있다고 판결, 연방이민법의 서자차별에 쐐기를 가했다.

온타리오주외에도 브리티쉬·콜롬비아주와 뉴브룬스위크주가 중혼에 의한 자식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남녀가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것이 통례인 서인도제국에서 태어난 사생아들과 홍콩에서 첩에서 태어난 서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연방이민법에 의해 합법적 이민초청이 거부되어 왔다.

쉬드판사는 이같은 이례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온타리오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서자 초청이민 신청이 있을시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없다를 뚜렷이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변호사협회의 이민법 분과위원회에서는 서자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 현재의 연방이민법을 개정하도록 연방정부에 압력을 가해왔다.

이에따라 연방정부도 이민법개정문제를 1년이상 심의했으나 아직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로이드·액쉬더 이민장관의 보좌관이 14일 밝혔다.

한편 토론토의 이민변호사인 멘델·그린씨는 모국에 서자를 둔 캐나다시민으로부터 11건의 양자신청을 이미 받았으며, 이는 매달 2~3건에 달하는 숫자라고 밝혔다.

北韓대표부 오남철 계속은닉하면

"유엔駐在 北韓외교관에 再入國비자 發給않겠다"

美국무성 재확인

미국은 유엔북한대표부가 오남철을 은닉하고 있는한 유엔주재 북한외교관에게 재입국비자를 발급치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다.

국무성의 펜·메이어스동남아담당대변인은 12일 유엔북한대표부 부대사 천재홍이 북한외교관4명의 재입국비자발급을 거부했다는데 대해 『미국은 이시점에 북한(DPRK)의 유엔옵서버대표부 관리들의 여행편의를 위해 재입국비자를 발급할 준비가 되어있지않다』고 밝혔다.

한편13일하오 국무성의 노만·단스씨는 북한의 유엔대표부 사람들이 니카라구아에서 열리는 비동맹국회의참석을 위해 출국전에 신청한 재입국비자를 거부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 신원및 비자신청일자등에는 언급을 피했다.

이번 조처가 미국의 북한정책변동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지않는 정책을 견지해왔으며 거기에 변동이 없는것이라고 단스씨는 답했다.

단지, 이번 케이스는 범법자(오남철을 지칭)의 도피를 두호하고 있는데대해 취하는 개별적인 조처이며 유엔대표부의 북한인물들에 한정되는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북한대표가 참석한 것을 비롯, 그외의 대북한관계에는 이번 조처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말한 단스씨는 84년올림픽에 북한선수단참가시 입국에 하등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R.245-3539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TORONTO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드디어 판매개시!

감기는 만병의 원인! 건조한 아파트생활에 주의하세요!!

日本제 최신형 원심식 전자동 가습기

지방에 계신 분을 위해서 Mail order를 받습니다. 물건값+송금료를 수표로 보내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가격 ——— US$79
카나다 $105 (+송금료)

(株) 日本家電
NIPPON KADEN LTD, BO.
MODEL NO. V.—57D
물용량 : 5ℓ
연속가습시간 : 14시간

가습기 원심분무식
Humidifier

* 예방보다 더좋은 약은 없읍니다!
습도가 부족한 겨울철의 건조한 실내는 누구나 쉽게 편도선(목젖)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아이들은 늘 감기가 계속되며 피부도 건성이됩니다. 필수적인 습도유지로 각종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세요.

* 최신형 전자동가습기의 특징
1. 소음이 전혀없으며 실내전체를 쾌적하게합니다.
2. 고장이 전혀없읍니다. (2년간보증)
3. 켜고 끄는 번거로움이 없이 최저 습도 40%이하에서는 즉시 자동으로 켜집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536-1692 R. 245-3539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포니 캐나다에 첫선

몬트리얼 자동차쇼 출품

(몬트리얼=정관섭지국장)한국인이 만든 차가 북미 최초로 캐나다땅에 첫선을 보였다.

현대자동차가 14일 이곳 보나벤처호텔에서 개막된 제15회 「몬트리얼·자동차쇼」에 출품한 포니(Pony)승용차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토론토의 현대자동차 지사에서 이곳에 온 현대자동차의 신왕식상무는 11일 오후5시30분 호텔 보나벤처의 볼단·룸에서 몬트리얼의 기자 30여명을 초청, 포니의 성능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은 작으면서도 해치백(Hatchback)으로 되어있는 실용적인 포니를 직접 운전해 보았다.

캐나다자체에서도 아직 자동차를 조립만 할 뿐인데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나라 한국에서 자동차를 제작, 캐나다시장에 선보이는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몬트리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가제트(Gazette)지와 라·프레스(Le Presse)지는 12일 사진과 함께 포니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이곳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자랑하는 「주르날·드·몽헤알」(Journal De Montreal)지도 15일자에 포니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첫선보이는 포니의 성능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확실히 언제부터 수입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으나 금년 7월경이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자동차쇼는 금년들어 캐나다에서 최초로 열리고 있는 만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새로 등장한 한국의 포니에 많은 눈길이 쏠렸다.

특히 포니와 거의 같은 사이즈인 소련의 라다(Lada) 사장이 직접 포니를 관람,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몬트리얼 자동차쇼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며 이어 밴쿠버, 토론토, 퀘벡등지에서 열리는데 현대는 포니를 각지의 자동차쇼에 참가시킬 방침이라고 신상무는 전했다.

몬트리얼자동차쇼의 한국전시장은 매일 오전11시에 개장, 밤11시까지 계속되며 안내는 이곳에서 현지 채용된 박명희양과 캐네디안 1명이 교대로 맡고 있다.

5도어 해치백에 엔진규격이 1,400입방센티미터이며 이탈리아의 자동차설계자인 조제토·지우지·로씨가 디자인한 포니는 일본의 미스비시의 라이선스로 조립된 뒷바퀴 추진(Rear Wheel Drive)식이다.

신상무는 전시장에서 기자질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니자동차에 관심을 보일줄은 몰랐다"면서 "우리는 일본자동차와 가격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토의 토론토·스타도 15일 포니에 관해 가격은 기본차체가 6,000달러 미만이 될것으로 본다고 했다.

포니자동차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란 이유로 캐나다에 관세없이 들어올 수 있다. 일본이나 유럽자동차는 12.1%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신상무는 또한 자동차쇼 첫날 기자들과 딜러들의 반응이 좋은데 대해 "현대자동차는 1967년도에 이미 포드자동차와 제휴, 자동차조립을 시작했으며 81년도의 매상액은 75억달러에 달했다.

포니자동차는 이제까지 중남미, 아시아, 중동, 영국 및 베네룩스국가들에게서 소규모로 판매되어왔다. 현대측은 84년도에 포니의 연생산량을 30만대로 늘릴 계획 이라고 밝혔다.

신상무는 또한 「포니의 캐나다 진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나 진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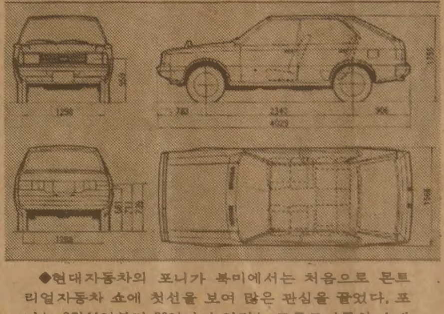
포니는 카푸스카싱(Kapuskasing)에서 혹동(Cold Weather)테스트를 받고 있으며 교통부(Transport Canada)로부터 판매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연합통신보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북미에 포니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한 시도로 조만간 캐나다에 현지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이 통신은 현대자동차 간부의 말을 인용, 현지법인설립 신청서가 캐나다의 외국투자심의위원회(FIRA)에 접수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에서 영업을 하기위한 외국인 투자사업은 연방정부의 투자심의기구인 FIRA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한편 FIRA대변인은 지난주 연합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자동차의 현지법인에 대한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의 자동차전시(Auto Show)는 오는 2월11일부터 20일까지 공항부근의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있을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북미에서는 처음으로 몬트리얼자동차 쇼에 첫선을 보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포니는 2월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토론토자동차 쇼에도 출품될 예정이다.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50>

흔적 金聖鍾作

국제콜걸된 日고관의 딸이 變屍體로…

한편 그 시간에 그가 묵었던 호텔에서는 일대 소동이 벌어지고있었다.

형사 두명이 호텔 종업원의 안내를 받으며 그와 여자가 묵었던 방안에 들어선 것은 그가 호텔을 떠난 직후였다. 형사들은 출입문이 잠겨 하는수 없이 프런트까지 내려가 신분을 밝히고 사정을 이야기 했다. 그래서 종업원이 비상열쇠를 가지고 그들을 안내한 것이다.

형사들이 달려온 것은 어떤 여자의 신고 때문이었다. 신고내용은 어떤 남자가 자기를 감간하려고하는데 급히 좀 와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그것은 별로 다급해하는 것같지 않고 은근히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그렇더라도 신고인만큼 가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형사들이 달려왔던 것이다.

문을 열자 방안은 텅 비어있었다. 형사들은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열쇠를 프런트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방안에 둔 채 문을 잠그고 사라졌다는 점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투숙객은 방값을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호텔측에는 조금도 피해가 없었다.

다시 프런트로 내려간 형사들은 형식상 숙박카드를 조사해보았다. 종업원의 말로는 남녀 한쌍이 투숙했다고 했다. 카드는 남자쪽 것만 있었다. 관례상 한 사람만 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형사들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호텔측의 양해하에 그카드를 빌어가지고 돌아왔다. 그 다음은 기계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그들은 카드에적힌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넣어 보았다. 10분도 못되어 회답이 왔다. 이름도 주소도 직업도 나이도 모두 틀리는 가공인물이라는 대답이었다.

형사들은 비로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시 호텔로 갔다. 아까 그방에는 이미 손님이 들어 있었다.

가까스로 양해를 구한 다음 그들은 방안을 샅샅이 조사해 보았다.

조사가 시작된지 얼마 후 그들은 침대 밑에서 여자의 시체를 끌어냈다. 그때는 이미 범인이 사라진지 한 시간 반이나 지났을 때였다.

두 형사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동안 살인 담당 형사들이 달려왔다. 다행히 죽은 여자는 패스포트를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신원이 밝혀졌다. 그런데 신원이 드러남으로 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놀랍게도 그녀는 거물 정치인의 딸이었던 것이다. 그것도 하나 밖에 없는 딸이었다.

『딸은 내가 죽였어. 그애를 너무 귀엽게 키운 나한테 책임이 있어.』

그 정치인은 딸의 주검을 앞에 놓고 장탄식했다.

파리로 유학간 딸이 학교에 다니지도 않고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게된 그는 딸에게 돌아올 여비만을 부쳐주면서 빨리 귀국하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딸은 바로 귀국하지 않았다. 그는 딸을 돌아오게 할 셈으로 일체 송금을중단했다. 그동안 딸은 궁색해진 나머지 몸을 팔면서 지냈다. 국제콜걸이 된 것이다. 생각끝에 집에서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갈을보냈다. 그때쯤 그녀는 지칠대로 지쳐있었다. 그녀는 귀국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알렸다. 그때 그녀는 홍콩에 있었다. 언제 도착하겠다는 말은 없이 조만간 귀국하겠다고 말하고 국제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①

朴男 그림

〈현대적 속담풀이〉 오강남 박사(종교학) ⑥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필연성과 개연성

김양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김양은 자기의 결백성을 주장한다. 옆에서 이양이 한마디 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안난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인과율이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철칙이 아니라, 하나의 통계학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금덩어리를 금고 속에다 넣어놓고 사람이 손을 안댄다면 몇백년 후건 그 금덩어리가 그 금고속에 그대로 남아 있으리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보아 그럴 확률이 가장 크다는 것 뿐이지 그 금덩어리가 금고 밖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절대적인 단언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겠지만 그렇다고 절대 나와서는 안된다고 하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백보를 양보해서 아니 땐 굴뚝엔 연기가 안나오는 것이 상례라고 치자. 그러나 여기서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따위의 인과법칙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첫째, 아니 땐 굴뚝에서 나왔다는 그 연기라는 것이 정말로 연기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다. 연기도 나지 않은 것을 연기가 난 것으로 잘못 본다거나 구름같이 생긴 도깨비 꼬리가 굴뚝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나 크리스마스때 싼타클로스 할아버지의 흰 수염이 굴뚝에서 삐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으레 연기려니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하는점이다.

둘째, 앞집 굴뚝과 뒷집 굴뚝이 내가 선 위치에서 볼때 일직선상에 포개져 있어서 뒷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치 앞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착각이나 오해로 인해 연기도 안 나오는 집 굴뚝에다 대고 「이집에선 지금 틀림없이 불을 때고 있노라」하고 단정하는 웃지 못할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

이제 백보를 더 양보해서, 그러니까 이백보를 양보해서, 정말로 김양집 굴뚝에서 진짜 연기가 나왔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란 김양을 단죄하는 것 뿐일까? 김양이 직접 땐 불인가? 직접 땐 불이라면 자진해서 땐 것일까, 강요에 의한 것일까? 자진해서 땠다면 왜 땠을까? 불을 때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이 무엇이었을까? 불을 때고 연기를 피워놓고도 그것이 연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는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일까? 하는 식으로 김양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아쉬운 것 아닐까?

남의 집 굴뚝 「연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선불리 판정 내리는 일을 삼가야할 뿐 아니라, 확인된 연기라 하더라도 그 뒤에 얽힌 사정에 깊은 이해와 동정으로 대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다.

여성단체 보이콧운동

페이TV 성인영화도입

오는 2월1일부터 시험방영될 3개 페이 TV중의 하나인 퍼스트·초이스사가 플레이보이기업과 3천만달러의 협정을 맺고 성인용 필름 방영권을 얻게 된 데 항의하는 전국의 여성단체들은 시청자들에게 일체 보이콧을 촉구했다.

14일 보이콧운동 조직자들은 또 퍼스트·초이스와 플레이보이와의 협정을 이룩해주고 이익을 낸 글렌·워렌·프로덕션사가 백화점 재벌 이튼의 방계회사임을 이유로 이튼회사에 대한 보이콧도 아울러 벌일것을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전국 12개 도시에서 시청이나 이튼백화점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오타와 시청에서 여성의 기회동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드·발토여사는 "이번 보이콧운동은 지금까지 캐나다 여성단체가 전개한 것중 가장 강력한 것의 하나가 될 것"으로 수천명의 여성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고 동창회

은사 정신택씨 초청

중앙고교 동창회(회장 함태민)는 모교에서 20년 근속한 선배이자 선생인 정신택(54)씨를 초청, 지난 13일부터 2박3일간 토론토 관광을 제공하고 제자들과의 회포를 풀게했다.

이번 모교은사의 방문을 위해 회장 함씨는 비행기표를 제공했고 부회장 한무웅씨는 숙식및 관광일체를 제공했다.

중앙동창회는 체육선생으로 야구부를 지도했던 은사를 위해 14일 저녁 플링턴·하우스에서 동창회를 가졌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박홍일, 김은하, 정근하씨등 정씨의 야구부 제자와 김문량 야구부선배는 정씨를 만나 오랫만에 선후배간의 회포를 풀었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Y영어토론반

다음 모임 29일(토)5시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캐나다 사회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Y성인영어토론반이 15일 Y회관(College×Dovercourt)에서 첫모임을 가졌다.

12명이 모인 이날 모임에서는 다음모임인 29일(토) 오후5시~7시에는 각자 토론반의 명칭을 구상, 3~5분의 스피치를 통해 의견을 발표키로 결정했다. 다음모임에는 또 캐나다의회의 토론 결의과정을 전문가로부터 듣고 실제 토론에서도 이를 적용해 볼 계획이다.

Y영어토론반 연락처는 김창열총무(536-1166)이나 Mrs. 한(275-5683)으로 하면 되며, 회비는 $5씩이다. 토론반지도는 한국에서 3년간 영어를 가르쳤던 UT대학원생 스잔·베제앙이다.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WHO'S IN CHARGE?

Reagan대통령의 피격 약2시간후 백악관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Secretary of State Alexander Haig(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은 Who's in charge?(누가 책임자인가?)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order of succession(승계권)이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본인인 국무장관이라고 잘못 말했을뿐 아니라, I'm in control here, in the White House,(내가 백악관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말해 미국 언론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다.

Haig가 묻고 온 Who's in charge?의 폭풍은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 「위기 관리위원장」에 자기를 시키지않고, Bush부통령을 임명했다고 해서 의회 증언중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주름살이 간 그의 이미지에 또 한번 먹칠이 가해진 것만은 사실이다.

「in charge(of)은 ~을 책임지고 있는」뜻으로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판매부 책임자가 누군가?」를 in charge of 를 넣어 영어로 옮겨본다면 Who's in charge of the sales department?하면 될것이고 「Mr. Gim이 책임 맡고있다」는 Mr. Gim is in charge, 이같이 간단히 대답할수 있다. (민병철 생활영어 제1권 19p. 참조)

charge에는 또 「외상으로 달다」의 뜻도있다. 백화점 같은데서 물건을 사게되면 점원이 반드시 Cash or charge? 「현금인가요? 아니면 외상인가요?」라고 묻게되는데, 이때 현금인경우는 Cash.라고 말하고 만일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Charge.라고 한다음 credit card를 내밀고 계산을 치르면 된다.

A: Miss, who's in charge of customer complaints?

B: What's the problem, sir?

A: I bought this coffee pot here yesterday and it's defective.

B: Do you have your sales receipt?

A: Yes, right here.

B: Take the coffee pot and your receipt to the Customer Service Desk on the second floor and they'll give you a refund.

A: 고객 상담실의 책임자가 누군가요?

B: 무슨 일이신가요. 손님?

A: 어제 이 커피 파트를 샀는데 알고 보니 불량품입니다.

B: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A: 네, 여기 있읍니다.

B: 커피파트 하고 영수증을 2층의 고객 상담실로 가져 가시면 환불해 드릴겁니다.

*receipt:영수증, refund:환불 customer:고객, 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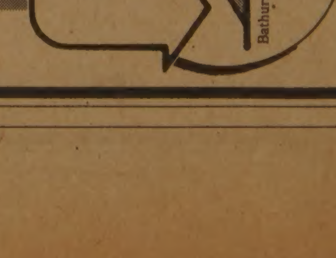
*defective:결점이 있는, 결함이 있는.

MODERN FURNITURE
ecosys
확장이전

제1에코시
2300 YONGE ST. TORONTO
(In Yonge-Eglinton Centre)
(B) 486—0397

교민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금년부터 저는 하기장소에 또하나 가구점을
마련하고 교민들께 보다 더 저렴하고,
격조 높은 가구를 안내하려 합니다.
2월중 open 예정이오니 더욱 애용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대표 김만구 배상

제2에코시 (B) 657—1785
1440 Bathurst St.
21VAUGHAN RD. (우편주소)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Canadians.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겨울낚시 시즌이 다가왔다

송어 잘 잡히는 심코호수

◀지난주 심코호수에서 제리·윌프렘노인이 대형 송어를 낚아올리는 모습. 심코는 온타리오에서 겨울낚시로 가장 인기있는 호수이며 특히 송어와 화이트피쉬가 많이 잡힌다.

동장군이 엄습, 대자연이 온타리오의 수정같이 맑은 호수 수면을 두터운 얼음 외투로 덮으면 호수위 빙상에는 에스키모의 집과도 같은 얼음움막(Ice Hut)이 세워지고 겨울낚시가 시작된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얼음움막속에서 가족과 함께, 또는 다정한 친구와 함께 밤을 세워가며 얼음낚시를 즐기는 운치는 무엇에도 비길수없는 추억이 될 것이다.

여름낚시는 보트와 많은 낚시도구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겨울 얼음낚시는 장비도 간편하고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겨울낚시에 필요한 도구는 낚시바늘과 줄, 봉돌(Sinker: 가라앉게 하는 납), 살아있는 미끼등이 고작이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지않아도 얼음움막집을 낚시꾼에게 빌려주는 오퍼레이터(Operator: 움막관리 임대자)에게서 구할수 있다.

빙상낚시는 온타리오의 북쪽호수에서는 정월 초하루경에 시작되어 1월말경에는 절정에 달하며 3월중순경에 해빙과 더불어 막이 내린다.

빙상낚시를 떠나려면 얼음움막 오퍼레이터와 연락하여 이들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주변지리를 잘 알뿐아니라 어디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알고있기 때문이다.

빙상낚시에는 따뜻한 방한복과 벙어리장갑, 눈장화등 혹한에서도 견딜수있게 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낚시규정이나 주변상황에 관한 정보는 자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에서 얻을 수 있다. 주소는 Whitney Block, Queens Park, Ontario, M7A 1W3이며 전화번호는 (416)965—7883.

빙상 안전수칙

빙상낚시는 언제나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 차나 눈차(스노우·모빌)가 얼음속으로 빠진다해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수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얼음구멍을 뚫을때에는 옆사람과 너무 가깝게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쓰레기를 버릴 비닐봉지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빙상낚시 인기호수

온타리오주내에서 빙상낚시로 인기를 끌고 있는 호수는 심코(Simcoe), 니피싱(Nipissing), 테마가미(Temagami), 에리(Erie)등이나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바크(Bark), 보쉬쿵(Boshkung), 레드·세다(Red Cedar)등도 무시할 수 없는 훌륭한 곳이다.

가장 알려진 곳이 심코호수. 최근 이곳에서는 질이 양으로 바꾸어졌지만 아직도 "트로피"감의 송어(Trout)와 화이트피쉬(White Fish: 은백색의 송어의 일종)가 많이 잡힌다.

이곳에서는 물고기의 방생때문에 청어, 빙어, 농어등의 새끼와 중치가 많이 잡히며 중량급 월아이(Walleye)도 심심치 않게 걸린다.

주말낚시로 괜찮은 곳은 니피싱 호수. 이곳에서는 월아이, 창꼬치(Pike), 농어, 하이트피쉬등이 잘 잡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양보다는 맛이 무척 좋은 링(Ling: 대구와 비슷함)은 무슨 이유때문인지 최근 잘 잡히지 않고 있다.

테마가미(Temagami)호수에서는 민물대구(Cod)가 해진후에 많이 걸리며 이외에도 2월15일부터 1개월간은 화이트피쉬가 잘 잡힌다.

카와타호수는 빙상낚시가 금지되어 있지만 부에 있는 스카고그호수는 개장되며 이곳은 월아이낚시로 최적지이다.

노스·베이에 가까운 노숀싱(Noshonsing)호수와 민덴(Minden)에서 멀지않은 보슈쿵(Boshkung)과 마운틴(Mountain)호수도 빙상낚시로 추천할만한 곳이다.

이외에 창꼬치를 잡고싶으면 와우바우쉰(Waubaushene)가까이에 있는 스터전(Sturgeon)호수나 바크(Bark)호수로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무지개송어나 잡종송어를 원한다면 오웬·사운드(Owen Sound)나 와이톤(Wairton)호수도 무방하다.

▼아래도표는 심코호수와 니피싱호수의 얼음낚시장 안내표이다.

LAKE SIMCOE

오퍼레이터	장 소	전 화	움막수	수용능력	요 금
Keffer's Fish Huts	Keswick	(416) 476-4161	22	120	$15
Mercury Lodge	Keswick	(416) 476-4078			
Draper's South Shore Charters	Jackson's Pt.	(416) 722-8905	8	28	$12
Bonnie Boats	Jackson's Pt.	(416) 722-3862	20	78	$15
Crittenden Bros.	Jackson's Pt.	(416) 722-5509	12	68	$15
Heyink's Huts	Jackson's Pt.	(416) 722-3718	18	70	$15
Jubb's Huts	Pefferlaw	(705) 437-1867	15	90	$12-$15
Pefferlaw Huts	Pefferlaw	(705) 437-1890	20	120	$13-$15
Kingfisher Huts	Pefferlaw	(705) 437-2943	22	98	$18
J. R. Fish Huts	Pefferlaw	(705) 437-2645	12	60	$15
Bill's Fish Huts	Pt. Bolster	(705) 426-9917	10	42	$13 & $15
Sarasin's Huts	Pt. Bolster	(705) 437-2647	14	75	$13 & $16
Casey's Huts	Pt. Bolster	(705) 437-1560	20	100	$15
Wally Hales' Huts	Pt. Bolster	(705) 437-2125	18	86	$15-$17
Randy Carleton	Pt. Bolster	(705) 437-2645	18	108	$12-$15
Grant's Fish Huts	Pt. Bolster	(705) 437-1940	40	160	$13 & $16
Mel's Fish Huts	Pt. Bolster	(705) 437-2415	23	96	
Floyd Hales' Huts	Beaverton	(705) 426-7415	27	116	$18
Roy Camplin's Huts	Beaverton	(705) 426-9482	20	80	$16 & $18
Brown's Huts	Brechin	(705) 484-5344	10	60	$14
Allan's Huts	Shanty Bay	(705) 728-9261	6	16	$10
Lou's Huts	Barrie	(705) 436-1829	20	90	$13 & $16
Glen Haven Beach Huts	Barrie	(705) 436-4963	8	32	$12 & $15
Canning's Huts	Minet Pt.	(705) 726-1676	30	152	$10 & $13
Simcoe Bait Centre	Stroud	(705) 737-3927	10	40	$12 & $14
Janet Snack Bar	Stroud	(705) 436-2701	8	40	$10

LAKE NIPISSING

Operator	Location	Telephone	Huts	Capacity	Rates
Deepwater Point Cottages	Callander	(705) 752-2188	14	56	$60 2-day HK pkg.
Dolphin Motel	North Bay	(705) 472-5370	22	88	$120 2-day AP pkg.
Dunrovin Motel	North Bay	(705) 474-1430	17	70	$120 2-day AP pkg.
Bear Creek Cottages	Callander	(705) 752-1157	10	50	$65 2-day HK pkg.
Green Road Cottages	Callander	(705) 752-2910	9	45	$65 2-day HK pkg.
Idle Tyme Fishing Camp	Callander	(705) 752-1069	10	35	$56 2-day HK pkg.
Meadow Inn	North Bay	(705) 753-1429	6	24	$100 2-day AP pkg.
Rockview Camp	Callander	(705) 752-3067	5	18	$55-65 2-day HK pkgs.
Sandy Bay Cottages	Callander	(705) 752-1050	7	28	$65 2-day HK pkg.
Sunset Cove	Callander	(705) 752-2820	10	40	$65 2-day HK pkg. $125 2-day AP pkg.
Veuve River Camp	Verner	(705) 594-2594	9	46	$85 2-day AP pkg.
Waltonian Inn	Callander	(705) 752-2060	20	80	$130 2-day AP pkg.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 합니다
·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알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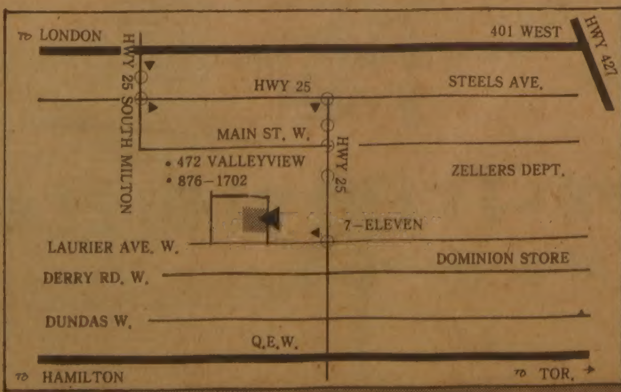
종중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임술년을 보내고 희망에찬 복된해 계해년을 맞이하여 일가여러분의 가내에 만복이 깃드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종친회는 회원들의 단합으로 일취월장 상호부조하며 낯서른 이민생활에도 외로움을 잊으며 재미있게 모임을 거듭하고 있음은 오로지 회원여러분의 조령숭앙과 일가단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재삼감사드립니다.

금번 새해의 첫 월례유사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아직 동참하지 못하고 계신 많은 일가회원으로부터 여러번 문의전갈 또는 전화연락을 받았읍니다마는 일일이 통지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면을 빌어 일괄안내 드립니다.
부디 소만합석하옵기 학수고대합니다.

◇일 시: 1월22일(토) 오후7시
◇장 소: 약도참조.
◇연락처: 451—4450, 453—7748



재카나다경주이씨종친회
회장 이 승 영

여름에 韓·日 外相회담

共同성명 실천위해 外交접촉 활발예상

2월에 貿易회담열어

빠른時日內 정기閣僚회담도

全대통령 訪日일정도 교섭

韓日양국은 全斗煥대통령과 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간의 頂上회담과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사항을 실천하기위해 활발한 외교접촉을 가질것으로 보인다.

韓日양국은 우선 공동성명에 포함돼있는 全대통령의 訪日초청수락을 실현키위해 외교교섭을 벌일예정이며 그결과 일정이 잡히는대로 全대통령이 일본을 공식방문할것으로 보인다. 또 가급적 빠른시일안에 外相회담과 定期각료회담을 갖는다는 방침에따라 오는 여름 東京에서 양국외상회담을 갖기위한 외교교섭을 가질예정이다.

이와함께 이달하순께는 공동성명합의에 따라 일본公共개발차관(ODA) 도입교섭을 벌이는 한편 2월중에는 양국무역회담을 가질예정이며 빠른시일안에 頂上간 직통전화설치에 와서 델렉스 시설을 개선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의 한소식통은 13일 이번 외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ODA차금도입을 위한 實務교섭을 1월중에 열어 82년도분과 83년도 供與分에 관해 구체적인협의를 가질예정이라고밝히고, 그러나 한국측이 요청한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소식통은 또 지난80년1월이후 중단됐던 韓日年例무역회담을 2월중再開, 關稅인하, 非關稅장벽개선, 對韓정책수입의 확대등을 요청하는 한편 산업기술협력의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소식통은 이어 상반기중 韓日문화교류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교섭을 벌일 예정이며 현의회가 결성될경우 청소년교류활성화와 함께 순수문화예술분야의 교류확대를 위한 實務者급의사전접토가 시작될것이라고 말했다.

日、담배등 86개品目 관세引下·輸入 확대

【東京13日=聯合】 일본은 나까소네(中曾根)수상의 미국 방문을 4일앞둔 13일 미국 및 서구동맹국들과의 무역마찰을 완화시키기위한 5개항의 새로운 시장개방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경제각료회의에서 통과된 이시장개방조치는 담배·초콜리트·비스킷등 86개품목의 관세인하 또는수입쿼터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고 정부관리들이 밝혔다.

그러나 정부대변인은 일본과 알력을 빚고있는 美國産 쇠고기및 오린지등 2개품목의 수입은 더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2개품목수입확대문제는 앞으로 美日양국간의 실무급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말했다.

정부관리들은 이번 시장개방조치로 47개공산품과 28개 농산물에대한 수입관세가 오는4월1일부터 인하 또는면제되며 특히 수입담배관세는 현행35%에서 약20%로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관세면제품목에는 농업용 자동기기및 트랙터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大使 11명異動

- 駐사우디 崔侊洙씨
- 駐덴마크 延河龜씨
- 駐벨기에 崔浩中씨
- 駐베네주엘라 林明鎭씨
- 駐스위스 崔常燮씨
- 駐스페인 卓羅鉉씨
- 駐가봉 尹億燮씨
- 駐가나 安煥哲씨
- 駐라이베리아 李鉉弘씨
- 駐이디오피아 金得寶씨
- 駐파라과이 金奭圭씨

정부는 13일 前체신부장관 崔侊洙씨를 외교관직 特1級으로 임명, 駐사우디아라비아대사로 발령하는등 海外공관장11명의 人事를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駐덴마크대사에 延河龜씨(駐스페인대사), 駐벨기에대사에 崔浩中씨(駐말레지아대사), 駐베네주엘라대사에 林明鎭씨(駐덴마크대사), 駐스위스대사에 崔常燮씨(駐리비아대사), 駐스페인대사에 卓羅鉉씨(駐파라과이대사), 駐가봉대사에 尹億燮씨(駐프랑스공사), 駐가나대사에 安煥哲씨(본부대사), 駐라이베리아대사에 李鉉弘씨(駐캐나다공사), 駐이디오피아대사에 金得寶씨(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 駐파라과이대사에 金奭圭씨(본부대사)를 각각발령했다.

신임 대사들의 약력은 다음과같다.

◇崔侊洙대사 ▲서울출신·48세 ▲서울法大卒 ▲亞洲국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방차관 ▲대통령비서실장 ▲제1무임소 체신부장관

◇延河龜대사 ▲서울출신·54세 ▲서울大文理大卒 ▲亞洲국장 ▲駐제네바·UN공사 ▲駐케냐 ▲네덜란드, 스페인대사

◇崔浩中대사 ▲서울출신·53세 ▲서울大文理大정치과卒 ▲국제경제국장·통상국장 ▲駐제네바공사 ▲기획관리실장 ▲경제·정무차관보 ▲駐말레이지아대사

◇林明鎭대사 ▲仁川출신·55세 ▲延世大卒 ▲駐泰國공사 ▲駐싱가포르총영사 ▲駐자이레대사 ▲儀典실장 ▲駐덴마크대사

◇崔常燮대사 ▲서울출신·51세 ▲陸士卒 ▲駐이탈리아 ▲駐벨기에武官 ▲陸本정보참모부차장 ▲駐리비아대사

◇卓羅鉉대사 ▲江原출신·45세 ▲陸士卒 ▲駐페루武官 ▲合參정보과장 ▲駐파라과이대사

◇尹億燮대사 ▲仁川출신·51세 ▲陸士·서울文理大卒 ▲合參의장보좌관 ▲駐프랑스武官 ▲韓美聯合司기획참모부차장 ▲駐프랑스공사

◇安煥哲대사 ▲서울출신·55세 ▲서울大文理大卒 ▲駐이탈리아·駐UN공사 ▲駐아트랜타총영사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

◇李鉉弘대사 ▲서울출신·52세 ▲서울法大卒·美오크라호마大卒 ▲駐싱가포르영사 ▲駐UN참사관 ▲국무총리비서실과견 ▲駐泰國·駐캐나다공사

◇金得寶대사 ▲서울출신·55세 ▲國民大卒 ▲駐뉴욕영사 ▲駐美참사관 ▲총무과장 ▲駐캐나다참사관 ▲駐伊太利공사

◇金奭圭대사 ▲慶北출신·47세 ▲서울文理大정치과卒 ▲총무과장 ▲駐美참사관 ▲駐스웨덴공사 ▲美洲국장

튀니지 國防장관에 全대통령, 훈장수여

全斗煥대통령은 13일 하오 靑瓦臺에서 튀니지의 스라에딘·발리 국방장관을접견하고 保國훈장 統一章을수여했다.(사진)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 朴贊兢총무처장관과 蔡義錫駐튀니지대사, 자파르駐韓튀니지 대사가 배석했다.

"外交서도 北傀 압도해야"

全대통령、在외공관장회의서 강조

全斗煥대통령은 13일『우리는國力면에서는물론 외교경쟁에서의 劣勢에 초조해하고있는 北傀공산집단이 더이상 무모한 도전을 획책할수없도록 외교분야에서 먼저압도적우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다해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저녁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금년도 제1차 在外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을위해 만찬을 베푼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새로운수출시장의 개척등 通商외교활동을더욱 활발히전개해 금년도 수출목표달성은 물론 우리경제의안정성장과 國力신장에 이바지할수있도록 倍前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본국정부의 지시를 이행한것으로 할일을 다했다고생각하는 소극적인 자세로서는 波高높은 국제정세의 激浪을 헤쳐나갈수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외교의 당면한목표 성취하기 어렵다』고 지적, 공관장 여러분들을 비롯해 외교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투철한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정신무장을 더욱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OPEC、자카르타會議 결렬되면

油價、배럴當 32弗로

【매나마(바레인)AP=聯合】 사우디아라비아등 페르시아灣의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국들은 오는2월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OPEC 4개국시장감시위원회의에서 油價및 産油量쿼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2월중으로 그들의 석유가격을 배럴當32달러로 인하할수밖에 없을것이라고 걸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빈발신기사에서 페르시아灣산유국들이 이란과 리비아가 OPEC공식油價보다도 싼값에 석유를 판매함으로써 초래되고 있는 손해때문에 油價를 내릴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면서『그러나 페르시아灣산유국들은 오는2월의 OPEC 4개국시장감시위원회의에서 産油量쿼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경우 油價인하를 단행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전했다.

民韓、全黨大會 舊正전에 개최

民韓黨은 13일하오 임시당무회의를 열고 전당대회개최일자를 논의한끝에 당초 예정일보다 앞당겨 오는 舊正인 2월13일 이전에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民韓黨은 전국지구당 개편대회도 1월중 모두 마치기로 했는데 전당대회 일자는 2월7·8일중 擇日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무회의는 黨紀委가 전의한 朴完奎·李載根 두의원에대한 懲戒해제건의안을 의결했다.

로스토 軍縮局長 레이건、辭表수리

【워싱턴AP=聯合】 레이건美대통령은 12일 유진·로스토 군비관리 군축국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케네드·아델먼 유엔대리대사를 임명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또 軍縮局부국장에는 데이비드·에머리前下院의원(共·메인州)이 임명될것이라고 밝혔다.

레이건대통령은 신임 군축국장이 제네바 美蘇군축협상타결을 위한 美정부의 노력에 조만간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임한 로스토前국장은 짤막한 성명을 발표『최근 수일간 레이건대통령이 人事이동을 원했음이 분명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퇴진이 레이건대통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레이건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했던 로스토前국장은 對蘇군축협상에서 너무 나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共和黨소속 右翼보수파로부터 사임압력을 받아왔다.

한국일보
토요일도 광고 접수합니다
533-2361

전화번호변경안내

서울시내 다음지역의 가입전화는 당산전신전화국에서 화곡전신전화국으로 수용변경됨과동시 전화번호도 변경됩니다

변경대상지역	변경일시
○목동 일부지역 ○동촌동 일부지역	83.1.15.24:00

※전화번호 변경내역 대상지역의 633·634·635·676·677 국은 692·693국으로 분산수용되며 일부는 가입자번호도 변경됨
※변경되는 전화번호는 개별통지함
1983년1월14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장

社告

張吉山 다시 連載

오는 18일부터 本紙 7면에

○○○○○ 한국일보의『張吉山』이 새해를맞아 오는18일(화요일)부터 독자여러분에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읍니다. 지난74년7월11일 처음 한국일보에등장한「張吉山」은 파란만장한 풍운아답게 네차례나 潛行을거듭, 독자여러분들을 안타깝고 궁금하게 만들어주었읍니다. 81년9월4일 1641호를 내보내고 건강등 개인사정으로 붓을놓았던 작가 黃晳暎씨는 몇달전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의욕적으로「張吉山」의 재집필에 착수, 이번에는 결코 중단하지 않고「끝」자를 꼭쓰고야 말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읍니다. ○○○○○

◇곡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야 말것을 다짐하고 있는 작가 黃晳暎씨(左)와 崔然石화백。

서민들의 情恨그린 大叙事詩

作家 黃晳暎씨 再執筆

挿畵는 崔然石화백이 계속맡아

내년 7월이면 연재 시작 10년을 맞는 大河역사소설「張吉山」은 우선 그분량만으로도 한국소설사에 하나의 큰 금을 그은 대작입니다. 우리 민족사의 주인공인 서민들의 情恨과저력을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린 웅장한 대서사시로서 세계문단에 내놓아도 결코 손색없는 한국 현대문학의 白眉라는 문단의 평가를 받고 있읍니다. 近代史의 민중운동이 일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시점에서 중단됐던「張吉山」은 앞으로 1년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됩니다. 새로 한국일보 7면에 연재될「張吉山」의 삽화는 종전대로 야성적이면서도 웅장한線을 구사하는 崔然石화백이 맡게됐읍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 종착점을 향해 숨가쁜 질주를 하게될「張吉山」의 모습을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社

17일 外務委 소집

韓日 정상회담질의

국회는 17일하오 外務委를 열고 나까소네(中曾根康弘)日本수상의 訪韓과 韓日양국頂上회담결과등에 대해 정부측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이기로 했다.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들은 12일저녁 靑瓦臺의 新年음악회에서 접촉을 갖고 이에 합의하는 한편 17일 상오에 또한차례의 총무회담을 갖고 운영위도 각각 갖기로 했다.

蘇核衛星 20일께추락

英전문가 地球대기권進入때 모두불타

【런던UPI=聯合】 기능이 정지된 소련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 1402호는 오는20일께 지상에 낙하할것같으나 지구대기권재진입시 모두 불타버릴것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을것이라고 영국의 저명한 위성관측가인 조프리·페리씨가 12일 밝혔다.

페리씨는 이날 전화인터뷰를 통해『코스모스 1402호가 모두 불타버릴 것으로 생각된다』면서『설사 불타지 않은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그 규모는 아주 작을것이며 인구조밀지역에 낙하할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다.

런던북쪽 1백20㎞의 케터링고등학교교사인 페리씨는 물리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공위성을 관측해 왔는데 이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틀전 코스모스1402호의 지상낙하일자를 22일로 예측했던 페리씨는 이 위성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낙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예측일자도 22일에서 20일로 앞당겨졌다고 덧붙였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社會漫評

앞으론 좀 가까와 질까?!…

地平線

1972년 4월 파리에서「제1회 세계여성대회」가 개최되었다. 세계최초의 여성권익 옹호회의였다. 당시의 개회식에 나온 지스카르데스탱대통령은『태초에 여성이 있었다…』는 서두로써 축사를 하였다. 태초에「말」이 아니라「여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파리의 신문들은 대통령이 여성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냈고, 대통령자신은 최대의「페미니스트」(여성숭배자)가 되었다고 추켰었다. ▼우리고대사회에서도 여성은 천상과 지상을 잇는「대모신」의 역할을 해왔다(金烈圭교수). 그러나 우리 민담속에나 오는 많은 여성은 성격이 다양하여 한국여성의「원형상」이 어떤것인지 일률적으로 단정키는 퍽 어렵다(李符永교수). 대체로 고대에는 여성이 자유분방할수있을 만큼 사회적속박이 덜하여 숭상의 대상까지로도 되었지만 후대유교가들어오면서「인종」으로써 살아야 하는 사회적 처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성이 여성의 본성까지 무시당하면서 사회적으로 차별될수는 없는것이다. 오늘날에는 다시 여성의 본성이 존중되고 또 남성과 다를바없는 인격적인 권리를 회복해 가고 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에도 여성운동의 구심체가 될「여성개발원」이 발족하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 ▼「사건」은 최근에도 있었다. 12일 서울 형사지법은 築모여인의 절도누범혐의에 대해「생리기간중의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생리기간중의 이상심리를 면책사유로 인정한것은 이땅에서 처음 같다. 여성의 일부가 어떤기회에 갖는 어쩔수 없는「심신」을 사회가 이해하고 관용한 초유의 판례를 남긴듯하다. ▼우리나라 여성사고의 35.6%가 생리직전과 그기간에 일어나고(漢江성심병원조사) 미국에서는 52%가 그렇다(달론박사)는 분석도 있다. 여성 자살자의 3분의 1이 같은 때에 발생한다고도 한다. 이는 여성호르몬분비에 이상이 생겨 행동이 이상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전혀 예방불가능한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한 최근엔 주장되고 있다. 자신의 이상소행을 아는 사람은 미리 약물주사나 심리요법으로 예방책을 강구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심리는 모든 여성에게 다 일어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나 감정이 다소 안정을 잃는일은 흔하다고 한다. 일부 여성의 극단적인 이상행동때문에 모든 여성의「보선」에까지 말이 미치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번에 법은 드물게 관용을 베풀었지만 보다도 그런 현상에 안일하게는「선도」예방에 마음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한인의날 행사 재정보고

1982년 10월초에 있은 한인의날행사 재정보고를 회원여러분께 지상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1983년 1월

캐나다한인총연합회
회장 오기송

FINANCIAL REPORT

Celebration of Korean Heritage Day '82

INCOME

Federal Government	$11,000.00
Korean Government	8,421.23
Banquet Tickets	2,400.00
Member Fee(Individual and Reg. Org.)	1,950.00
Donation	424.20
Total :	$24,195.43

EXPENSES

Air Fair(32 persons)	9,265.85	Meeting(Planning, Room, Food)	349.65
Banquet	4,130.40	Office Supplies	91.56
Hotel(31 persons)	1,974.14	Honorarium(Dancer, Paper Presentation)	700.00
Assistance for 14 Reg. Orgs.	1,400.00	Meals(Participants for 3 days)	1,023.29
Communication(Tel, Mail, etc.)	438.55	Plaques, Bouquet	551.23
Printing(Invitation, Program, Ticket)	411.14	Future Administrative Expenses	2,641.83
Taxi, Parking, Gas	308.60	Total :	$24,195.43
Publicity(Newspapers)	659.19		
Room Decoration	250.00		

* As of October 18, 1982.
1) All expenditures are paid by cheques co-signed by secretary general and president.
2) All expenditures are provided by cancelled cheques and receipts.

Submitted by Ki Song Oh, President and Kwang Oh Kim, Secretary General.

Audited by 12/18/82

信賴와 誠實에 달렸다

새章연 韓·日관계 앞으로의 課題

全斗煥대통령과 나까소네(中曾根) 日本수상의 두차례에 걸친 頂上회담은 두나라가 대한海峽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가지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意志가 뚜렷한 것이었다.

많은 韓日문제전문가, 경제인, 시민, 학생들은 신문, 방송에서 「韓日간 제2時代」의 기본정신이 두 頂上의 공동성명에서 잘 표현되고 집약되었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담의 실무를 맡았던 金炳連외무부 亞洲국장은 13일 「이번 韓日공동성명은 간결하면서도 담아야할 내용 즉 양국의 현안 타결원칙과 앞으로의 協力방향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自評했다.

그러나 이 自評에 많은 한국인은 두 정상의 기본정신이 말의 修辭로 그칠까 우려하는 의견을 표시했다.

이는 나까소네수상의 소견처럼 여지껏 두나라관계는 共同協議, 합의, 공동성명, 協約, 協定등이 잘 안지켜지거나 지켜지다 뒤바뀌는 不信, 不便의관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全대통령의 표현대로 韓日관계는 千里길의 첫발을 내딛게되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관계의 章을여는 이시점에서 두나라, 특히 일본은 지금까지 變轉을 거듭해온 對韓자세와 공약을 신의와 성실로써 지켜야 할것이다.

지난날 日本의 불성실한자세는 얼마든지 列擧할수있다. 우선 지난 65년 韓日국교가 정상화될때 당시 李東元외무장관과 시이나(椎名) 외상간의 공동성명에는 在日한국인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정된생활을 영위할수있기를 희망하고 양국간에 건전하고 상호이익이되는 무역관계를 유지하는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거듭 확인했으면서도 그후에도 在日한국인의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못했으며 상호이익이돼야할 무역관계는 한국의 엄청난 무역적자현상을 초래하는 결과가됐다.

뿐만 아니라 이성명은 「시이나외상은 양국간에 새로운 우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두나라가 추구하는 자유국민의 공동번영에 크게 공헌할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피력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그후에도 全方位외교라는 이름하에 南北韓 等距離외교정책을 펼쳤는가하면 북한에 군수품을 수출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엔 역사교과서 왜곡波動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나까소네 수상의 對韓인식이 과거 일본수상들의 그것에서 한발 접근했다는 앞으로의 韓日관계를 기대할수 있을것같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나까소네수상은 우리의 평화노력과 安保노력에 대해 수년간의 외상회담이나 각료회담에서 나타난 표현보다 적극적인 표현을 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東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기 때문에 이지역의 평화와 안정및 번영을 위해 앞으로 상호노력할것」을 확인하는등 매우 전진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韓半島사태를보는 「일본의눈」이 달라졌음을 말해준다.

千年내다보고 懸案타결
兩國頂上 意志관철돼야

일본측의 이같은 對韓협력자세는 經協의 정치적타결에서 이미 實證되기도 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在日한국인 처우개선문제 ▲무역역조시정및 산업기술협력문제 ▲문화교류문제 ▲어업문제등의 현안문제 해결에까지 연결돼야 할것이다.

在日한국인 처우개선문제는 年金法혜택과 영주권 문제로 대별할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국민年金法중 國籍조항을 철폐하여 在日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을 개방했으나 35세이상의 在日한국인(약20만명)에 대해선 연금불입기간의 단축등 혜택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측은 35세이상의 한국인들이 일본에 정착하게된 경위로 봐서 국민연금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측은 1백만명의 일본인 무연금자와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永住權문제는 67만在日한국인중 66년부터 71년까지의 협정영주권신청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여 이미 영주권을가진 39만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인들에관한 구제문제이다. 한국은 신청기간중에 미처 신청을못한 民團및 中立계동포들과 75년이후실시된 在日동포모국방문및 省墓團사업에 참가하여 民團으로 전향한 사람들에게 협정영주권의 재신청기간을 요구하고있으나 일본측은 국내여건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고있는 실정이다.

한국측은 그밖에도 在日한국인들에게 교육및 취업에 문호를 개방하여 사회참여의 길을 확대해 줄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무역逆調와 산업기술협력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성질상 일본측의 적극적인 개선및 협력의사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오는2~3월에 열릴것으로 보이는 韓日무역회담에서 한국측은 일본의 관세및 비관세장벽철폐와 일본구매사절단의 한국파견, 對韓중화학제품수입증대등을 요구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협력및 이전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산업기술의 협력과移轉은 민간기업들의 호응없이 정부차원의 약속만으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일본정부가 민간기업들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야하며 양국간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문화교류는 민간차원에서 양국민들이 폭넓은 대화를 할수있는점에서 양국의 異質感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국민차원의 폭넓은 교류를위해선 문화교류가 불가피하다면서 금년에는 韓日문화교류협의회가 구성되어 다방면의 교류가 이뤄질것으로 전망했다.

漁業문제는 濟州道연안 北海道어장에서 양국어선들이 서로 질서를 지키며 어로작업을 하자는 것이다.

65년 국교정상화이후 일본어선들이 우리 專管水域에까지 침범하여 어로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엔 우리나라어선들이 北海道근해에서 일본영해안으로 들어가 고기를잡는다고 일본측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즉 양국간의 어업문제는 협정초기와는 입장이뒤바뀌어 현재는 우리측이 守勢에 몰리고있는데 양국은 매3년마다 漁業협정을 更新하고있으며 오는10월에 다시 어업협정을 체결토록되어있다.

한편 12일 외상회담에서 합의된 정책협의회설치는 양국의 상호입장을 이해하는 좋은 외교채널이 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있다.

年1회씩 양국교대로 열리는 정책협의회에선 韓半島를 포함한 東北亞와 국제정세전반을 분석하게된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이런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조급히 서두르다간 모처럼의 解氷무드가 수포로돌아갈 가능성도 없지않다」면서 「지금까지의 韓日관계가 숨만 쉬는상태에서 활동을 하지못했던점을 감안, 千年을내다보고 천천히 그리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도 이런 深思를거쳐 실무 테이블에 앉아야 모처럼의 두頂上의 기본정신은 함께 짓밟처럼 펄럭일게 분명하다.

【李在武기자】

◇12일 韓國에앞서 기자회견을하는 나까소네(中曾根) 日本수상.

壽命다한 人工위성 3,200개
回收기술개발 시급

초속10km 地球궤도 떠돌아
太平洋上 추락誘導 바람직

【워싱턴AP=聯合】 소련의 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1402호의 추락이 임박한가운데 세계는 지구궤도에 널려져있는 각종 인공폐기물과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회수하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새로이 관심을 돌리고있다.

美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개발상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있는 도널드·케슬러씨는 이를 「골칫거리」의 처리가 인간이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우주개발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목을 죄어올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루3~5km씩 고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오는24일께北半球의 어딘가에 추락할것으로 우려되는 코스모스 1402호를 추적하고 있는 北美방공사령부(NORAD)는 현재 지구 궤도에 떠있는4천8백 여개의 궤도비행물체중 약3분의 2가 폐기된 추진로키트와 수명을 다한 위성등 각종 우주쓰레기라고 지적하면서 이 「골칫거리」들이 지구중력과 그들 각자의 원심력이 상쇄되는 영구궤도에 널려져있다고 덧붙였다.

이 우주쓰레기들은 지상약 9백km의 영구궤도를 돌면서 정기적으로 별똥과 충돌하거나 보다 낮은 궤도로 내려와 분해돼버리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우주쓰레기의양이 10년전에 비해 약10%가 늘어났다고 우려하고 있다.

美우주항공천문연구소(AIAA) 과학자들은 이 우주폐기물들이 비록 작기는 하나 소총탄보다 무려 30여배나 빠른 초속 10km로 비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속도는 두꺼운 금속판을 쉽게 뚫고지나갈수 있는 위력을 이들 폐기물들에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궤도를 돌고있는 다른 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희박한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NASA는 지난81년5월14일 蘇聯우주정거장 「살류트」6號및 「소유즈」4號와의 충돌위험을 피하기위해 기상위성의 발사를 연기시키는 조치를 취한일이 있음을 전문가들은 상기시키고 있다.

케슬러씨는 우주장비들이 수명을 다해 파괴되기 전에 이를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 언젠가는 개발되겠지만 문제는 이같은 기술을 가까운 장래에 개발해 낼수없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代案의 하나로 수명을 다한 위성을 太平洋한가운데의 정확한 한지점에 추락시키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ASA는 위성을 보다견고하게 제작하는 한편 캐나다기술진이 개발한 굴절식회수장치를 단 우주선을 만들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한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을 추진중이다.

◇東獨서 추방된 西獨슈테른誌특파원

東獨에서 추방된 西獨슈테른誌특파원 디터·부브리자가 12일 東·西베를린경계선을 넘어와 하인리히·하이네검문소앞에서 승용차문을 열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東獨당국은 슈테른誌가 지난해 12월30일의 에리히·호네커東獨국가평의회의장 암살미수사건 기사를 게재한것과 관련, 부브리 특파원을 추방했다. 【베를린12日UPI=聯合】

美의 北傀유엔대표부 再入國 거부의 뜻

吳남철의 法廷出頭위한 첫단계 措置

"免責特權은 업무限定 기능" 再 확인

美국무성은 유엔주재 北韓외교관에 대한 재입국비자의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吳남철의 추행미수사건이후 법정출두요구를 계속 거부하고있는 북한유엔대표에 대해 사실상 첫단계조치를 가했다.

12일 국무성 고위당국자는 4명의 북한외교관이 재입국비자를 신청했음을 밝히고 미국정부는 북한의 유엔대표부원들에 대해 현 단계로선 미국을 떠나 여행할 수있게하는 재입국비자를 발급할 태세를 갖추고있지않다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특히 이조치와 관련, 북한의 유엔대표부가 미국내법을 위반한 도망자를 은닉하고 있기때문이라고 吳남철사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吳를 1차적으로 법정에 출두토록 촉구했었다. 이에대해 북한대표부측은 재검토에대해 미국내외서 거부할뿐아니라 법정출두를 거부했다.

지난해9월5일의 미국여인추행기도사건후 미국경찰고 나와 국무성은 지난해 12월8일 대표부원의 면책특권 유엔과 북한의 문제이나 체외교관의 면책특권 운운하구구한 해석이 나오자 국무성은 다시 대표부설치문제는 통틀은 내다보고있다.

이번 북한대표부의 재입국은 업무에 한정된 기능, 즉 특권임을 명백히 밝히고 吳를 계속은닉, 출두를 거부하고있는 북한의 비협조적태도에 비추어 북한대표부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한 성명을내기에 이르렀다.

류비자등 그밖의문제는 미국에 관련된 문제임을 말하고 재검토도 이런 범위내에 속하는 것임을 밝혔다.

이번 재입국비자의 발급거부는 이런 범위내에서 가장 온건한 것이긴하나 그조치가 비자신청은 니카라과의 非同盟회의참석을 이유로 내세우고있다. 어쨌든 이런조치가 계속되는경우 북한대표부원의 교체는 물론 통신이아닌 면담으로 필요한 대외접촉및 연락기능이 어렵게되며 장기적으로는 활동에 상당한제약을 받을수도있는 조치로 풀이되고있다.

결국 이번 조치의 의미도 역시 吳남철의 법정출두의촉구로 보여진다. 특히 국무성고위당국자의 말에 「현단계로선」이란 단서를붙인것이 볼은것은 더욱 吳의 출두를 촉구하고 있는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있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中共軍 내부不和

鄧小平 人民軍 완전장악 못해

蔣총통, 臺灣국방협의회演說

【臺北AP=聯合】 蔣經國自由中國총통은 中共의 실권자鄧小平이 4백50만 人民解放軍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共軍내에는 여전히 심각한 불화가 계속되고있다고 말했다고 CNA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蔣총통이11일 국방협의회를 주재, 宋長志국방부장과 郝柏村참모총장및 전군주요지휘관들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같이말했다고 전했다.

蔣총통은 中共軍내부에서 벌어지고있는 이같은 갈등때문에 中國본토에서는 임대혼란이 초래될것이며 鄧小平은 사상적인 견해차이등으로 人民解放軍을 완전히 장악하는것이 어렵다는 사실을발견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국제金利 계속下落

美주요銀 「우대」11%적용

美國의 프라임레이트를 비롯한 주요 국제금리가 올들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美國의 시티뱅크와 모건뱅크 등 비롯한 주요 은행들은 12일 사이에 프라임 레이트를 0.5%포인트씩 인하, 11%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 뉴욕금융시장의 페드펀드(聯準資金)금리가 지난달부터 계속하락, 한달사이 0.38%포인트가 내렸고 한달전에 비해 재무성증권(TB)은 0.33%포인트, 은행인수어음은 0.75%포인트가 각각 내렸다.

沈載鴻씨를 임명

民正 서울지부 事務局長

民正黨은 13일 서울市지부사무국장에 沈載鴻 전내무부민방위본부장을 임명했다.

직제格上확대改編

서울지방國稅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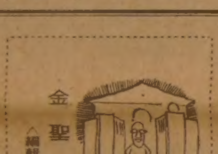
국무회의는 13일 서울지방국세청장직제를 고쳐 청장의 직급을 현행 2급에서 1급(관리관)으로 올리고 直稅, 間稅및 調査국장의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는등 기구를 格上, 확대개편키로 했다.

개정직제는 또 현재의 징세조사국을 徵收직속의 징세관(4급)과 홍보담당관으로 개편하는 한편 청장직속의 조사관을 조사局으로 개편토록 했다.

한국일보 633-2361

메아리

逆說



金聖佑 〈編輯委員〉

대학 입학의 원서 접수가 마감되어 이제 待天命만 남아있다. 그동안 북새통에 정신이 없었다가 한바탕 소란을 치르고나서 생각하니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대학신입생선발 하나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무슨 난리라도 난것같다. 30여만명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데 4천만이 온통 야단이다. 입학당사자나 가족들뿐 아니라 일가 친척이나 친지들까지 들떠 있으니 실로 국민적 大事다. 남다른 교육열 때문이라고 곱게 봐줄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實狀은 그렇게 한가로운 사정이 아니다. 사람들이 웅성대는곳에는 야바위판이 있다. 장바닥에서 야바위판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크게 한판 벌여놓았다. 우리 교육은 지금 市場바닥에나와 자리를 펴고 계신다. 4천만이 관여하니까. 「잘봤다 못봤다 하지말고…」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다. 온 국민의 시선을 모은데 죄를 내기는 잘 냈다. 다른 궁은 재주로 이만한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것인가. 그래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놀라운 연습이요 배짱훈련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눈치가모자라 중국을 事大했다는 적용을 모자라 國日의 日帝를 당하고 배짱이 말할까. 가르치기는 잘 가르친다. 우리나라에서 학생의 천경은 눈치인가 모른다.

요 成功의 王道는 배짱이니까 이런 것 공부부터 시키는 것이옳다면 옳다. 당연한 國民敎育의 第一課 겠다. 뉘라서 이 時利에 적절한 敎課를 가르친다는데 서로 다투어 밀치고 닥치고 해서 敎室로 달려가지않을 것인가. 그래서 학교문앞 마다 웅성거리고 전국이 들썩거린다.

요행심 强化교육만해도그렇다. 福夫人들에게 물어보라. 致富術은 요행이다. 부자 안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고 요행만큼 힘안드는일은 또 어디 있던가. 일하는 자는 먹지 말라. 노루자만이 배부르리라. 一이것이 聖經 말씀보다 값진 우리 교육제도의 垂訓이다.

대학의 門은 學問을 공부하러 들어가는 門이 아니고 우리社會의 特部를 구경시키는 문이 되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우리의 아픈 데를 가리켜 준다. 正道에 길이없다. 실로 어쩌다가 우리교육이 이렇게 되었는가.

고도로 문명화된 인간과 미개인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교육에 있다.

다. 인류학자들은 미개인의 정신적 소질은 가장 진보된 문명사회의 인간과 大差가 없다는 증거를 내놓고있다. 야만민족의 어린이들을 그생활환경에서 옮겨 잘 교육받은 가정의 어린이와 똑같이 교육을 하면 거의 같은 知的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개인에 있어서나 종족 전체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다. 食人을 그만둔지 몇해 안되는 인도네시아의 어떤 種族은 세계 일류의 체스경기선수를 여러사람 냈다. 비슷한 종족에서 여러 數學者가 배출되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너도 나도 자식교육을 시킨다.

이 이치를 교육제도에 代入하면, 고도로 문명화된 나라와 미개된 나라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교육제도에 있다고도 할수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을 공부시켜 보겠다는 우리 국민의 교육열은 아마 세계 제일이 아닐까 한다. 그욕적이야어쨌든 우리는 그 교육열을 꺾을수는없다. 그것이 우리國力의 基力이다. 그熱이 우리나라의 推力을 생산한다. 그런데 우리의교육제도는 그 熱을 건전하게 살리지 못한다.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한시간이라도 더 공부하겠다는 학생더러 공부를 못하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불가피 하더라도 불행한 일이다. 교육제도는 어떻게든 공부를 더시키자고 있는것이다. 학교교육을平準化한다는 것이 자칫 國民愚鈍化 교육을 시킨다거나 학교교육을 正常化한다는 것이 헹여 학교 교육無用化에까지 이르지나 않을까 겁이 난다.

사키라는 영국작가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전에는 아이를 버릴 염려가 없다」고 逆說을했다. 학생을 버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넣지 않으려는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인것 같다.

50년 核실험要員

英국방성, 被害여부 確認위해 健康진단

영국국방성은 12일 영국이 지난 70년대 실시한 핵폭발실험에 참가했던 요원들의 건강진단 피해여부를알아보기 위해 이들 1만2천명의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그와같은 조치는 濠洲나 태평양제도에서 실시된 핵폭탄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많이 죽어가거나 후유증을 앓고있다는 보도가 나온뒤 취해진 것.

이에 앞서 신문보도들은 핵실험에 가담했던 前요원 1백50명이상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방사능관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런던=聯】

海外토픽

◇튀기孃 뮤지컬에 出演 오는 2월 1일 보스턴의 컬로니얼극장에서 개막될 뮤지컬 「오직그대뿐」이라는 작품에 주연을 맡을 前패션모델 「튀기」가 뮤지컬에서 착용할 의상을 입은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욕12日AP特約=聯合】

섹스는 최고補藥

★심장질환회복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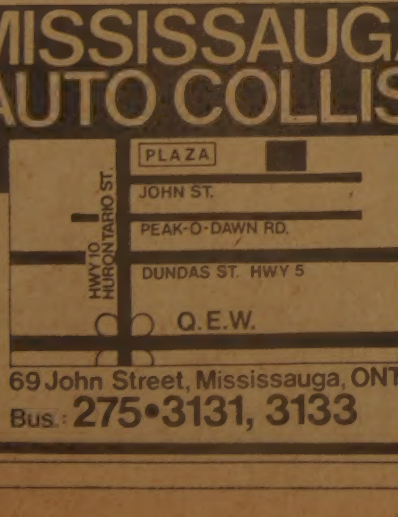
섹스는 「자연이 내려준 최대의 보약」이며 심장마비증세를 겪은 이후에도 섹스를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미국의 한 정신과의사가 주장했다.

「섹스와 심장질환」이라는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인 토머스·P·해키트 매사추세츠종합병원정신과장은 최근 심장관계저술가회의에서 심장마비를겪은후 정기적인 섹스생활을갖는 사람은 회복속도가 빠르고 사회적인 적응도 빨리된다고 말했다.

해키트의사는 특히 심장마비를 경험한후에는 일단 내리막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섹스라는 말은 입에 올려서도 안된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장질환을 겪은후에는자연최고의 보약」인 섹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라고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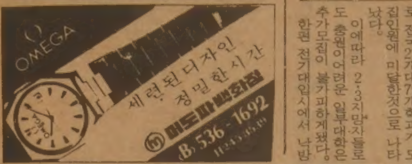
그는 또45세이상 중년층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 이들은 청년층보다 덜격렬한 섹스행위를 하면서도성적만족을 얻고있어 부부간의 행위가 심장혈관계통에 무리를 주지않았으며 안전했다고 지적. 【투손(美애리조나州)=AP】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정 창 헌

謹賀新年



元曉大橋통행 無料

東亞건설, 서울市에 헌납

2월1일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교량인 서울 汝矣島의 元曉대교가 오는 2월1일부터 무료로 통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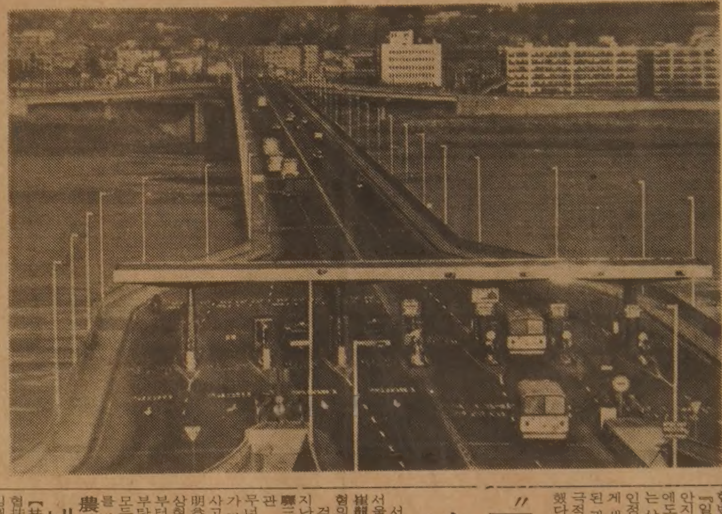
元曉대교를건설, 운영해온 東亞건설 崔元碩회장은 13일 서울시를방문, 元曉대교에 대한 통행료징수권리를 포기, 서울시에 헌납한다는 각서를 金聖培시장에게 전달했다.

元曉대교는 지난78년 7월13일 東亞건설이 민자 2백25억원을 들여 착공, 81년10월17일 완공했으며 81년12월10일부터 2001년 12월9일까지 東亞건설이 통행료를 징수, 투자비를 회수한후 서울시에 헌납할 예정이었다.

그간 元曉대교의 통행료는 2·3륜차 1백원, 나머지 차량은 2백원이었고 82년11월말현재 징수총액은 9억8천만원뿐이다.

東亞건설측은 元曉대교를 서울시에 헌납하게된것은 통행료징수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주고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제1漢江橋와 서울대교의 교통량분산효과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착공당시 당국은 元曉대교의 교통량을 81년에는 1일 1만3천1백27대 82년에는 1일 2만4천3백93대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81년에는 1일 1만3천6백97대 82년에는 1만4천8백55대만통행, 1일분 이자를 회수하기위한 통행규모인 3만8천8백20대분에 크게못미쳐 1일분이자는 6백16만4천원인데, 실수입은 2백97만1천원뿐이어서 그동안 큰적자를 봐왔다.



◇헌납된 「民資다리」 東亞건설이 세운 우리나라최초의 民資다리인 한강의 元曉대교가 적자에 몰린끝에 서울시에 헌납돼 2월1일부터 무료통행이 가능해졌다.

술에滿醉 2명숨져

歸家중 언덕서굴러

【釜山】12일 하룻동안 부산에서 술에 만취된후 집으로 돌아가다 언덕에서 떨어져 2명이 숨졌다.

12일 하오8시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태선씨(55·海雲臺區盤松洞250)가 집앞 높이2·7m의 축대에서 떨어져 하천에 숨져 있는 것을 인근에 살고있는 이상순씨(36)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또 12일하오5시께 海雲臺區盤松3洞산4앞 하천에서 술에 만취된 채 신음중인 40대 남자를 집으로 돌아가던 우이근씨(30·海雲臺盤松3洞산4)가 발견, 시립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숨졌다는것. 【鈴】

前期大경쟁 2.45대1

문교부, 最終집계

문교부는 13일 전국62개4년제 전기대의 지원현황을집계, 모집인원 16만9천1백2명에 41만4천34명이 지원, 예년보다 높은 평균 2·4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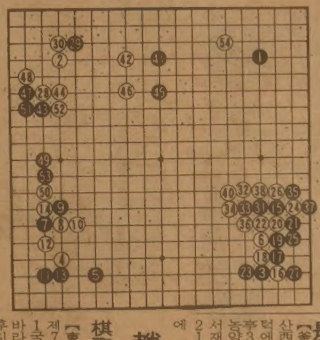
문교부는 또 이같은 지원자수는 올 대입학력고사 전체 성적통지자 64만7천9백71명의 63·9%로 지난해 전기대에 26만6천3백56명(48·6%)이 지원한것에비해 약 15만여명이 더 지원한것이며 이때문에 경쟁률도 지난해 1·6대1보다 높아졌다고밝히고 그이유로 올해 학력고사 평균점수가 크게 높아져 지원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극심한 눈치작전으로 전국27개대79개학과가 모집인원에 미달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2·3지망자들로도 충원이어려운 일부대학은 추가모집이 불가피하게됐다.

한편 전기대입시에서 낙방하게되는 수험생은 24만4천9백32명으로 전기대 미지원자 23만3천9백37명등 모두 47만8천8백69명이 36개 후기대(모집인원3만3천2백95명)와 1백28개 전문대(〃11만9천9백97명)에 지원한다해도 32만5천77명이 다시 낙방하게 돼 재수생누적현상이 또다시 큰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됐다.

한편 같은날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釜山·大邱등 전국 11개교육대학엔 모집인원 4천5백60명에 1만2천2명이 지원, 평균 2·6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7기 棋聖戰 7번승부제1국 (1~54)
白 名人 趙治勳9단
黑 棋聖 藤澤秀行9단
〈黑5집반공제…제한시간 각9시간〉
※39는 24의곳

무시되는 大法院의「부당課稅」판결

일반納稅者에 계속 賦課

稅法개정등 後續조치없어

「個別소송원칙」채택 惡用

“억울하면 訴訟하라” 배짱

일선세무서나 행정관서에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채 계속 같은사항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민 한사람이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벌여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까지 받아냈다해도 세금부과관서는 이에 아랑곳없이 다른납세자들에게 똑같이 부당한 세금을 계속 부과하는 횡포를 부리고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을경우 일선세무서나 행정관청에서 이를 참작, 관계세법을 개정하거나 똑같은 성질의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야하는데도 이를무시하고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또 우리나라의 소송체계가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판에관여한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개별소송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도 기인한다.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행정청이 문제된 사건의 확정판결이 있기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해도 확정판결이 나온후에는 다른 납세자들에게도 판결내용대로 부과하는게 온당한일이다』면서 『계속 부과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계세법을 법원의 판결취지에 맞춰 개정,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하려는 태도가 아쉽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문에 세금부과 관서에서는 소송을 당할경우 패소할것이 확실하면서도 『당신도 억울하면 소송을내 해결하라』며 부당한 세금을 계속 부과하기 일쑤고 납세자들은◆아예 행정청이 패소한 줄을 모르거나◆알았다 해도 소송까지 하는게 번거로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과된 세금을 물고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왜건(Wagon)형승용차에 대한 세금.

대법원은 지난해 2월9일 이 왜건형차에 대해 「단순한 승용차가 아닌 승용겸용 화물차」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방세법및 그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1년에 4번내는 자동차세가 소형승용 자동차는 1기에 7만여원인데 반해 승용겸용 화물차(기타 소형 승용자동차)는 1만6천여원으로 4분의1에 불과하기 때문에 왜건이 어느 자동차에 해당하느냐에따라 왜건소유자들은 세금납부액에 큰 차이가 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세부과 관서인 각시·도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후에도 계속해서 왜건소유자들에게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고있다.

대법원판결이 있은후 많은 왜건소유자들은 시·도가 계속해서 소형승용차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대해 『대법원판결은 소송을 내 승소한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당신도 억울하면 소송을 내라』는등 퉁명스런 대답만 들었을뿐이다.

특히 각시·도는 내무부에서 『주용도가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에 따라 과세하라』고 지시한것을내세워 공장이나 농장에서 사용하는 왜건은 승용겸용화물차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뿐이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모든 왜건은 「승용겸용화물차」라는 것이므로 내무부의 지시내용이나 시·도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11월 『부동산의 실제거래가액이 불분명할때 기준시가로 하지 않고 세무조사(환가계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도 세무서에서는 계속 환가계산에의한 세금부과를 하고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위해 양도차액을 계산할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때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돼있는데도 그시행령은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을때는 확인된 어느하나의 가액을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지가상승률에 따라 환가계산한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즉 모법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시행령이 환가계산방법을 둔것은 위법이라는게 대법원판결의 취지다.

최근 서울西部세무서에 이의신청을낸 李모씨(50·서울恩平區佛光洞)의경우 79년 취득했다가 82년 양도한 부동산50평에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이 불확실하자 소득세법규정대로 취득및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계산, 1백50만원을납부했다.

그러자 세무서는 李씨가해당부동산을 양도한 상대방이 법인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알수있게되자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지가상승률을 감안, 취득가액을 계산해내 양도소득세로5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李씨가 이의신청을낸 것인데 기각될경우 소송으로 번질게 뻔하고 이렇게 되면 국가패소는 확실하다.

결국 李씨처럼 세무서의부당과세에 맞서기위해서는 소송전상 부과된세금은 일단 납부해야하는데다 이의신청, 재심청구등 전심절차와 소송을 수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이같은 현상에대해 서울통합변호사회 金駿洙변호사는 『일선행정부원들이 책임을 안지려고하는 무사안일주의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는 상급청에서 즉각 잘못을 인정, 대법원 판결취지에 맞게 새지시를 내리거나 문제된 관계법령을 고쳐가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말했다. 【崔榮植기자】

指紋날인 거부 崔昌華목사

일본 法務省상대 訴訟제기

【東京=鈴】일본에서 지문날인거부등 차별반대 운동을 벌이고있는 崔昌華목사(후꾸오까縣 기따뀨슈市 거주)는 13일 자신의 해외여행을 금지한 일본법무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崔목사는 東京지방법원에 제기한 「재입국허가신청불허가 처분의 취소및 1백만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외여행금지가 지문날인거부에 대한 보복이며 차별적인 인권유린행위라고 주장했다.

崔목사는 작년10월 서울에서 열린 인권관계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재입국허용을 신청했으나 법무성에 의해 거부당했었다.

일본정부는 작년10월부터 외국인등록때의 지문날인거부자에 대한 재입국허가를 내주지않고있어 작년말 한 美國人여성도 소송을 제기했었다.

“不拘束으로 해주겠다”

賂物받은 警察官구속

서울지검 수사과는 13일 서울江南경찰서 수사과소속 崔龍起순경(28)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순경은 지난해 12월14일 서울江南구 驛三동651의2 확장공사장에서 담벼락이 무너져 이동네 주민 文모씨가 전치17주의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여관주인 白明益씨(56)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조사하면서 白씨로부터 불구속으로 해달라는 부탁과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1백30만원을 받은혐의다.

農協돈 2千萬원 네다바이당해

【扶餘】12일하오4시께 농협扶餘郡지부 부아지소 사환 김재석군(21)이 현금2천만원을 갖고 지소에서 8백여m 떨어진 군지부로 가던중 현금을 모두 네다바이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이날 지소돈을 군지부에 전달하기위해 가던중 양어머니인 정화자씨(45·扶餘邑부아리 170)집에 잠시들렀는데 이때 평소 안면이 있는 구지연씨(45·주거부정)가 와 있어 함께 방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구씨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김군에게 까스명수2병을 사달라고 부탁해 김군이 돈봉투를 방안에 둔채 약국에 다녀와보니 구씨와 돈봉투가 함께 없어졌다는것이다.

경찰은 김군의 진술에 따라 구씨를 긴급 수배했다. 【鈴】

20代처녀 失戀비관 農藥먹고 自殺

【釜山】12일하오6시께 부산西區槐亭3洞산1 야산중턱에서 김영경양(22·西區槐亭3洞21)이 실연을비관, 농약을마시고 숨져있는것을 서재완군(12·西區槐亭2洞218)등2명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鈴】

趙名人, 초반부터 意慾的자세

棋聖戰 1局개막

【東京13日=宋孝彬특파원】제7기 棋聖戰도전7번기 제1국이 13일상오9시 日本이바라기縣 닛꼬(日光)市에서 후지사와(藤澤秀行)棋聖과도전자 趙治勳名人의대결로 진행되고 있다.

趙名人의 執白으로열린 이 대국에서 후지사와棋聖은 비교적 속기로 두고 있으며 趙名人은 28수를 통상31자리에 두는대신 선수를두는등 처음부터 의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날 대국장주변에있는 프로와 아마기사를 대상으로 「關善」는 예상투표를실시한결과 54·5%가 趙名人의 승리를 45·5%가 후지사와棋聖이 승리한다고 응답했다.

朴順天여사 社會葬 엄수

故朴順天여사의 사회장 영결식(사진)이 13일 상오11시 서울獎忠洞 국립극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장례위원장인 丁來赫국회의장은 조사를통해 『朴여사는 나보다는 당을위해, 당보다는 국민을 위해 모든 난관을 앞장서서 극복하면서 불굴의 정치소신과 경륜을 펼쳤으며 이땅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하는데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마다하지않은 지도자로서 모든 국민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라고추모했다.

유해는 영결식이 끝난후 장지인 경기南楊州郡 渼金邑金谷천주교회 공원묘지로 운구, 안장됐다.

李瑄根박사 永訣式

국사학계원로 霞城 李瑄根박사 영결식이 13일하오2시 국립묘지 현충관에서 李崇寧문화재위원장, 李用熙전통일원장관, 黃壽永국대총장등 각계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李박사의 유해는 국립묘지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

列車에 봉고車받혀 건널목서 1명死亡

【光州】12일낮 12시30분께 전남和順郡和順邑蓮陽里 蓮陽철도건널목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지나던 전남8가3609호 봉고승용차(운전사 宋泰鉉·40·光州市東區鷄林1洞485)가 때마침 지나던 順天기관차소속 1954호 화물열차에 들이받혀 운전사宋씨가 중상을입고 전남대부속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13일상오10시께 숨졌다. 【鈴】

陸士수석 沈常善군

육군사관학교는 13일 83년도 신입생(43기) 최종합격자를발표했다. 수석합격은 光州사레지오고출신 沈常善군(17·사진)이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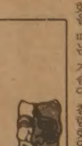
海士수석 朴종현군

해군사관학교는 13일 83년도 신입생최종합격자를 확정, 발표했다. 수석합격자는 부산洛東고출신의 박종현군(18).

벙어리 냉가슴

“할말없다”는 서울大 姜信澤교무처장

學父母와 當局사이의 샌드위치…



요즘 각대학교의 입시행정담당자들의 입은 납덩이를 물린것같다. 무언가 할말이 있을듯 한데도 한결같이 「할말이없다」 「모른다」다.

특히 서울大교무처장 姜信澤교수(49·사진)는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킨다. 때가 때인지라 평범한 말한마디라도 오해를 살 염려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지나칠정도다.

교무처장직을 맡은후 처음 실시되는 입시인만큼 무척 신경이 쓰일것이다. 고득점자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원서접수 첫날 지원자가 지난해의 30분의1에 불과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었다는 고백에서도 그의 걱정을 엿볼수있다.

그의 이같은 염려때문인지는 몰라도 서울대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원서접수현황을 밝히기로 방침을바꾸었었다. 그래놓고는 姜교수는 더욱 속이 편치못한듯 했다. 결과적으로 눈치와 배짱지원을 조장한것처럼되어서 더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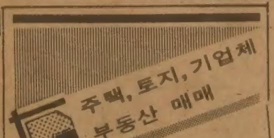
姜교수는 77년부터 79년6월까지 교무부처장으로 근무할때는 이런 고민이 전혀없었다. 당시의 불만은 면접에 대한것이 고작이었다. 지금은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상을 살피는 「面接」에 그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부교무처장 당시 학생생활연구소에 면접기준을 마련토록 의뢰, 이기준에 따라 면접에 점수를 부과할 계획도 세워보았었다. 姜교수의 생각은 대학입시가 획일적이라 한인간의 잠재능력을 평가할수없으므로 이를 평가, 대학입시에 반영하는것이 필요하다는데 바탕을 두고있다.

행정학을 전공한 姜교수는 학문자체의 성격상 알려야 할것은 널리 알려야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면서도 입시사정원칙이나 입시지원현황등을 빨리 발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정확성과 공정성은 생명이다. 대학입시와 서울대에 대한 학부형의 관심이 높아 늦더라도 「입시」란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두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믿고있다. 그러다보니 대화가 이루어지지않고 잘못하면 학부모와 당국사이의 샌드위치가 되는수가 잦다.

『제도를 만들었으면 일단 지켜져야 겠지요』 역시 할말이 많은 듯 하다. 【鄭在龍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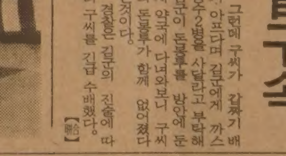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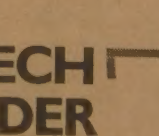
이민수속에 관한 제반사항
=무슨 내용이든 기밀엄수합니다.=
ㅁ가족 관계
ㅁ영주권 관계
ㅁ유학생 및 여행비자등.
자세한 상담은
몬트리얼의 Mr. 윤에게
연락하세요.
☎: 1-(514)-933-0217
1827 St. Cathorin.
Montreal H3H 1M2
Consultin Immigration Services
Immigration Consultation

ZENITH HI-TECH
BETA VIDEO RECORDER
SPECIAL OFFER!



VR9760W • Clear Special Effects Playback
• Dependable electronic tuning with 14-position channel selection
• Programmable 14-day, 4-event auto record timer
• Remote Video Action Control with Slow Motion
• Superb Beta picture quality with CLEAR playback
• Picture Speed Search in forward and reverse
• Audio Dub and more!

● ZENITH T.V VIDEO 염가판매
● T.V VIDEO STEREO & RADIO 수리합니다
Town and Country
882 KINGSTON ROAD ☎691-2000
SALES & SERVICE 김 광래



Park Avenue Academy
◉한국학생들을(외국) 위한 대학입시 준비과정및 TOEFL반(GRADE 12-13)교실.
◉83년 입학 1월, 3월, 6월, 8월, 10월에 수업 시작됨.
(주소) 60 Berl Ave, Toronto, Ont, M8Y 3C7

Linguistic Schools of Canada Inc.
★6개월 영어코스.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수시로 입학가능, 우수한 영어교사진으로 책임지도함.
(주소) 2360 Dundas St, West, Suit 322B
Toronto, Ont, M2P 4B2

◆한국서울사무소◆
C. P. Box 1755 Seoul
Tel: 743-2111(교)-4
Telex: MOCNDM K23231 Ext, 79954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서울에서 입학수속이 가능함)

★자세한 문의사항은
(416) 259-5411
Mr. Lee 그리고 Mr. PELLIZZER

아웃복서 腦손상 많다

인파이터보다 3倍나

젊은층·老將선수 많이 다쳐

KBC 李鍾范위원장 79명대상 조사

한강 聖心병원 石在鎬·金庚植박사와

인파이터 보다는 아웃복서가, 3배이상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한국권투위원회(KBC) 李鍾範의무위원장·한강聖心병원 石在鎬·金庚植박사팀에 의해 밝혀졌다.

지난해5월 필리핀복서 엔디·발라바의 사망후 착수한 이조사는 국내프로복서들의 뇌파검사결과를 토대로 했는데 조사대상선수는KBC등록 A급선수 79명.

뇌전문醫들의 복서 뇌손상에 관한 연구는 지난해2월 洪寬和박사(한국병원 신경정신과장)의 논문에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며 金得九사건…

◇뇌파이상 발생빈로 (단위·%)

구분	항목	%
경력별	2~4년	13·8
	5년이상	10·1
KO횟수	0 회	10·3
	1~4회	20·0
경험기수	1~20회	8·3
	21~40회	13·0
체급별	플라이	6·2
	밴텀~라이트	11·1
	웰터~미들	10·5
스타일	인파이터	4·3
	아웃복서	15·4
	겸비형	14·3
승률별	75~100%	11·8
	50~75%	5·6
	50%이하	40·0

"저돌적 선수가 負傷적다" 충격적 報告

勝率 50%이하 선수 10명중 4명 異常

「第一 오누이」 나란히 覇權

毛織(여) 合織(남) 頂上재탈환

기세올린 「KAL 돌풍」 꺼져

◇여자단체 결승리그에서 第一毛織의 李美雨가 대한항공 李眞淑이 넘긴볼을 받아치고있다。李美雨가 2-1로 승리。

한집안의 남녀팀인 第一合纖·第一毛織이 제36회 전국종합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 패권을 차지, 80년 두팀이 함께 나누었던 우승의 영광을 재현했다.

13일 文化체육관에서 열린 대회3일째 여자단체전 결승리그, 第一毛織은 지난해 단식챔피언 李美雨와 李慶子의 활약에 힘입어 돌풍의 大韓航空을 3-2로 힘겹게 눌러 3전전승으로 우승했다.

첫단식에서 白順愛가 李英美를 제압하고 한게임을 선취, 기세를 올렸던 大韓航空은 제2단식에서 李眞淑이 李美雨에게 20-22, 21-14, 21-19로 석패, 우승의 결정적찬스를 놓쳤다.

2-2의 급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단식에 출전한 第一毛織의 李慶子는 大韓航空의 金成姬를 21-10, 21-14로 제압, 토틀 3-2로 승리를 결정지었다.

第一毛織은 최종전서도 서울信託銀行을 3-2로 물리쳐 3승을 기록했다.

남자부의 第一合纖은 주전 金浣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金琦澤·李在勳·吳炳萬의 수훈으로 大宇重工業과 光星工高를 각각 3-1로 연파하고 3전전승으로 우승했다.

第一合纖은 光星工高와의 대전 제2단식서 金琦澤이 安宰亨을 13-21, 21-16, 23-21로 힘겹게 눌러 고비를 넘긴후 복식을 빼앗겼으나 3차단식서 왼손잡이 吳炳萬이 李正鶴을 17-21, 21-15, 21-17로 눌러 토틀 3-1로 승리했다.

◇제3일전적

▲남자단체결승리그

제일합섬 3-1 대우중공업

金琦澤 2-0 崔世炫 / 吳炳萬 1-2 朴昌益 / 李在勳 2-0 孫城淳 / 金琦澤·李在勳 2-0 孫城淳·朴昌益 …

제일합섬 3-1 광성공고

李在勳 2-1 孫城淳 / 金琦澤 2-1 安宰亨 / 吳炳萬 2-0 薛鎭泰 / 李昌勳 2-1 李正鶴 / 姜青龍 1-2 愼純範 / 田永鎬 0-2 李正鶴 / 鄭聖秀 0-0 …

林海東 2-1 高壽培 / 鄭聖秀 2-1 孫城淳 …

▲여자단체결승리그

제일모직 3-2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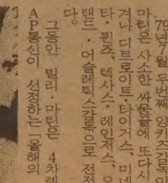
李英美 0-2 白順愛 / 李美雨 2-1 李眞淑 / 李英美·李美雨 2-1 白順愛·李眞淑 / 金貞美 0-2 金昇進 …

▲동종합순위 ①제일합섬3승 ②대우중공업1승2패 ③광성공고3패 ④…

▲동종합순위 ①제일모직3승 ②동아건설2승1패 ③대한항공1승2패 ④서울신탁은3패

美프로야구 말썽꾼 마틴 양키즈監督 3번째컴백

年俸 50만弗에 5년간계약 메이저리그 史上최고



◇빌리·마틴감독

【뉴욕AP聯=綜】美國 프로야구계의 말썽꾼 빌리·마틴감독(54)이 11일 3번째 뉴욕·양키즈 감독으로 컴백했다.

빌리·마틴은 오클랜드·어슬레틱스에서 쫓겨난후 다시 조지·스타인브레너 구단주의 뉴욕·양키즈 감독으로 돌아와 생애 8번째 메이저·리그 감독직을 맡게됐다.

양키즈와의 새 계약은 연봉 50만달러에 5년계약. 감독 연봉으로는 최고 수준이던 뉴욕·메츠감독 조지·밤버거의 26만달러 보다 갑절이나 많은 메이저·리그 사상 최고 연봉이다.

스타인브레너나 마틴, 두사람 모두 새계약에 舊怨이 전혀 문제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틴은 「나는 어머니에게도 화내는 일이 많지만 그분을 좋아하고있다」고 말했다. 스타인브레너는 「꽃배가 바람없이 갈수 있느냐」며 새 결합을 자축하고있다.

뉴욕·양키즈감독교체는 스타인브레너가 구단주가 된이래 이번으로 10번째. 스타인브레너는 82년한시즌에만 보브·레몬을 쫓아내고 진·마이클을, 마이클을 쫓아내고 클라이드·킹을 감독으로 바꿔쳤다.

마틴은 75년8월 처음 양키즈감독으로 취임, 76년 월드·시리즈에올랐으나 신시내티·레즈에 4연패당하고 77년 다시 월드·시리즈에 나아가 로스앤젤레스·다저스를 4승2패로 누르고 우승했다. 그러나 마틴은 구단주 스타인브레너를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했다가 78년7월 해고당했다.

마틴은 79년7월 두번째 양키즈감독이 된후 사소한 싸움끝에 또다시 쫓겨나 디트로이트·타이거스, 미네소타·트윈스, 텍사스·레인저스, 오클랜드·어슬레틱스감독으로 전전했다.

그동안 빌리·마틴은 4차례나 AP통신이 선정하는 「올해의 감독」으로 뽑혔으며 프로선수협회장으로 구단주들과의 싸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1950년부터 빌리·마틴은 자신이 우상처럼 떠받들던 케이시·스텐젤감독의 사랑을 받으며 뉴욕·양키즈2루수로 활약했으나 싸움판을 벌여 한달후 트레이드선수로 내몰렸다. 그후 마틴은 캔자스시티,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밀워키, 미네소타등으로 한팀에서 한해이상 베겨나지 못하고 거친 프로야구생활을 계속했다.

英복싱 12라운드制

55년傳統을 깨뜨려

【런던=聯】세계권투평의회(WBC)가 金得九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타이틀전을 12라운드로 줄인데 이어 英國도 12일 55년간의 전통을 깨고 국내타이틀전을 현행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줄이는 혁신적인 조치를 취했다.

英國권투협회는 이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국내타이틀전을 12라운드로 줄인다고 공식발표했다.

英國복싱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WBC및 유럽복싱연맹(EBU)의 12라운드로 회수를 줄인 조치에 뒤이은 것으로, EBU는 지난78년 안젤로·자코투치선수(이탈리아)의 사망에 충격을 받아 조치를 취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933-…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16>

朴婉緒 作 金光培 畵

부드러운 겨울 ㊷

수지는 오빠를 찾아온게 바로 그 근심을 나누기 위해서였다는걸 잊어버린양 그 근심에 강한 애착을 느꼈다. 그 근심을 수철에게 나누어준다는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라는 극단적인 격정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17>

朴婉緒 作 金光培 畵

부드러운 겨울 ㊸

「머어뭐야 돼。곧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울테니까」 …

名人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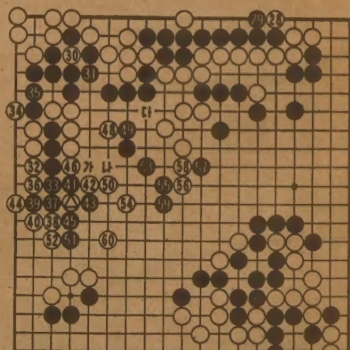
第14期 挑戰者決定리그

第7局 第6譜 (128~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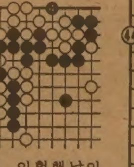
白(6段) 張 秀 英 〈1勝〉

黑(7段) 河 燦 錫 〈1敗〉

(각5시간·덤5집반)



黑 치명적 착각



좌상의 패는 결국 黑31로 후퇴했지만 河7단은 대만족이다. …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률.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실비아·윈.

韓·日頂上 직통電話 설치

經協40億弗 일괄妥結

어제 2次頂上회담 全대통령 訪日초청 수락

공동聲明 12개項발표…나까소네首相 離韓

全斗煥대통령과 나까소네·야스히로 (中曾根康弘) 일본수상은 12일상오 청와대에서 11일하오에이어 2차頂上회담을갖고 양국의 최대현안인 經濟協力을 일괄타결하는 한편 상호관심사를 폭넓게논의한뒤 이날하오 회담결과를 담은 12個項의 共同聲明을발표했다。★관련기사2·3면

양국頂上간에는 처음 이뤄진 이공동성명은 양국頂上이 韓半島에 있어서의 평화와안정의 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東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緊要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지역의 평화와안정및 번영을 위해 금후에도 상호노력해 나갈것을 확인했으며 양국지도자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對話를 위해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수상간의 직접대화를 常時가능케하는 전화、기타 적절한 回線을 가능한 조속히 개설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頂上은 또 상호신뢰와 互惠平等의 정신에 입각해양국간의 善隣우호관계가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해야할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韓日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이념을 추구하는 隣邦으로서 상호긴밀한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나가는것이 양국민을위해 이익이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공동성명은 밝혔다。

全대통령은 특히 자신이밝힌 太平洋頂上회담구상을 나까소네수상에게 설명、나까소네수상은 全대통령의 설명에 謝意를 표명했으며 양국지도자는 太平洋지역내 각국간의 점증하는 상호의존관계와 이지역의 급속한 경제·사회적발전에 유의하고 이들각국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韓日經協문제와 관련、공동성명은 나까소네수상이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일본의경제협력 기본방침하에서 가능한협력을 행할의도가있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年次베이스의 長期低利 정부차관을 포함한 각종의자금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표명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은 또 양국의지도자가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의일치를 보았으며▲정부、국회및 민간차원에서 폭넓은 대화와교류를 활발히 촉진시키도록 상호 노력하는 한편 ▲韓日간의 무역문제、在日한국인 처우문제、어업문제등도 우호협력정신으로 합리적인해결을 찾아내기위해 의의있는 의견교환을 했다고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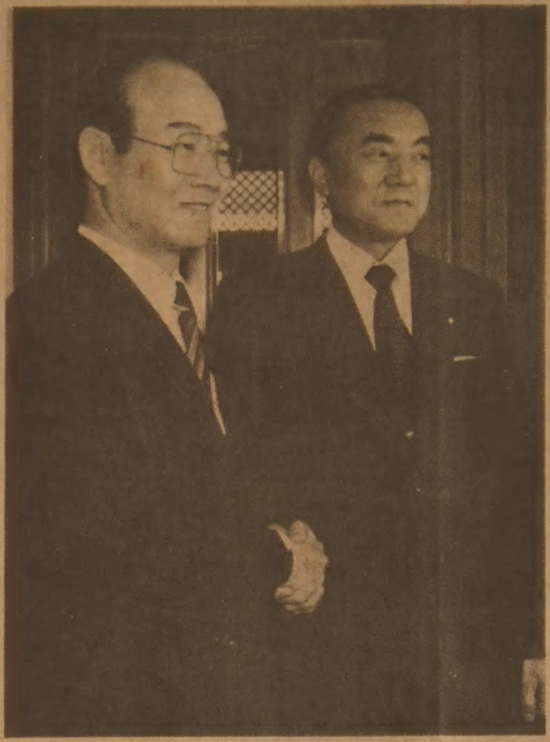
이 공동성명을통해 나까소네수상은 全대통령내외가 편리한시기에 國賓으로 일본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全대통령은 이를 기꺼이수락、방문시기는 앞으로 외교경로를통해 협의、결정키로 했다。

全대통령과 나까소네 수상은 이에앞서 이날상오10시3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30분동안가진 단독회담에서 韓日간의 經協문제를 일괄타결하고 많은 현안문제에관해의견의 일치를보았다고 회담이끝난뒤 黃善必 청와대대변인이 밝혔다。

全대통령은 특히 이날회담에서 선진국들이앞장서 경색된 세계경제국면을 타개해야하며 이를위해 이념과체제를 같이하는 友邦끼리 더욱결속、긴밀한 협력을 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으며、나까소네수상은 이에대해 전적으로 의견을같이한것으로 알려졌다。

나까소네 수상은 이자리에서 앞으로 일본은 한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이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民族和合 민주통일 방안과 南北韓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제의、88올림픽 서울유치등 全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것으로 전해졌다。

나까소네 수상은 이에 앞서 이날상오 국립묘지 참배에 이어 丁來赫 국회의장 金相浹 국무총리를 차례로 예방했으며 이날 낮에는 金총리주최 오찬에 참석하고 기자회견을 가진뒤 하오4시 金총리내외의 환송을 받으며 離韓했다。



◇韓日「새시대」의 다짐 韓日양국의 頂上들은 두차례에 걸친 頂上회담을통해 오랜 불편했던 관계에서벗어나 양국관계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다짐했다。全斗煥대통령이 2차 頂上회담을 위해 청와대에 도착한 나까소네 (中曾根) 수상을 굳은악수로맞고있다。

公共차관 18億5千萬弗

外相會談합의 1次分 4百億円 3월前 공여

무역均衡·在日동포 地位문제등도 논의

李範錫외무장관과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 일본외상은 12일 상오 외무장관실에서 외상회담을 갖고 韓日간의 현안인 經濟協力문제에 대해 向後7년간에 걸쳐 40억달러를 일본측이 제공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韓半島를 포함한 국제정세전반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며 양국외상은 ▲韓日定期 각료회의를 조속히 갖는다 ▲외상회담을 수시로 열어 상호관심사를 긴밀히 협의하고 여러레벨의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무역불균형、在日同胞 법적지위、漁業문제등 양국의 제반현안을 실무자회의를 통해 해결한다 ▲빠른시일안에 무역회담을 열어 산업기술의교류및 移轉문제를 협의한다는 등에 합의했다。

이날 회담의 가장 중요한 議題는 1년8개월간 끌어온 경제협력 문제였는데 일본은 40억달러중▲ODA(公共開發借款)를 18억5천만달러 ▲JEXIM(일본 輸出入은행 융자)을 21억5천만달러를 제공키로 했으며 우리나라가 요구한 상품차관에 대해선 JEXIM중 3억5천만달러를 뱅크·론(은행간 決濟형식의 借款)으로 제공、상품차관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했다。

양국외상은 또 ODA 18억5천만달러의 30%및 JEXIM중뱅크·론 3억5천만달러를 제외한 18억달러의 15% 범위내에서 內資 轉用을 인정함으로써 7년간 일본에서 들여올 40억달러중 內資 轉用 최대액수는 8억2천5백만달러가 됐다。

한편 ODA는 年利가 4~4·5%인데다 7년据置 18년 償還이기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借款중 가장 조건이 좋은것인데 그란트·엘리먼트 (無償供與分)가 45%나되어 7년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을 無償원조액이 8억3천2백50만달러가 된다。

40억달러의 평균金利는 平殘방식 (자금의성질이 다른 차관의金利를 혼합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年6%내외가될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상회담의 합의사항은 合議議事錄형식으로 文書化하여 양국의 실무책임자가 署名을 했으나 이를공개치않기로합의한것으로전해졌다。

한편 82년도 기준으로 7년간 제공될 18억5천만달러의 ODA중 1次年度인 82년도 円借款은 4백억円 (1억8천만달러相當)으로 확정됐으며 오는3월이전에 급여키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韓日 새次元협력 擴大"

나까소네會見 南北韓 유엔同時加入 지지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수상은 12일하오 『韓·日양국이 새차원의 관계정립을 위해 정치·경제·문화및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은 자유세계의일원으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위해 南北韓의유엔동시가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나까소네수상은 이날 이틀간의 한국방문을 마치고 離韓에앞서 숙소인 新羅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을통해 『韓半島의 평화와안정에대해 美國·蘇聯·中共·日本등 4개국은 지대한 관심을갖고있다』고 말하고 『韓半島의 안정을위해서는 한국자신의 노력도 중요하나 4개국의 분위기조성도 중대하다』고강조했다。

그는 『남북한의 엄한 對峙상황속에서 한국이 벌이고있는 균형유지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하고 『한국이 평화통일을 달성할때까지 잠정적인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나까소네수상은 韓·美·日 3國 軍事협력체제와 관련、『일본은 헌법상 개별自衛權은 인정되나 집단적自衛權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 방위는 美·日안보조약에 우선 의존하고 부족한점을 자주적으로 보충할것이며 군사적이외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韓 日양국이 상호 겸손한 자세로 共存·共榮을 모색해나가야한다』면서 『在日한국인의 법적지위 개선및 사할린 거주 한국인의 귀환을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까소네 17일訪美 18일 레이건과會談

【東京朔=聯合】나까소네 (中曾根) 일본수상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면서 18일 레이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것으로 11일 공표된 그의 訪美공식일정에 의해 밝혀졌다。

나까소네 수상은 레이건 대통령이 베푸는 오찬회에참석한후 정상회담에 들어가며 부시 美부통령이 베푸는 만찬회에 참석하기앞서 같은날 조지·슐츠 국무장관및 와인버거국방장관과 별도의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歸國 나까소네首相 全대통령、電話통화

全斗煥대통령은 12일하오7시15분 1泊2일간의 공식訪韓일정을 끝내고 귀국한 나까소네(中曾根康弘)일본수상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兩國협력·交流 활발히" 金총리

"自由무역 유지 노력을" 日首相

金總理초청午餐

金相浹국무총리는 12일 하오 新羅호텔에서 나까소네수상을 위해 베푼 오찬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역사、지리、문화적으로 가까운 두나라는 서로 밀접한관계에 있으면서도 과거를 돌이켜 볼때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이번 각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국민이 신뢰의바탕위에서 협력、교류가 활발해지기를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까소네수상은 답사를통해 『최근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동시불황에빠져있고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도 채무누적문제등 많은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히면서 『세계 자유무역의 존립에의존해야 하는 양국으로서는 경기회복、자유무역유지를위해 노력해야할것으로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鐵道廳長 崔琪德씨

정부는 12일 철도청장에 崔琪德전 해군제2참모차장 (사진)을 임명하고 安昌和청장은 이날자로 의원면직했다。

◇崔청장略歷=▲大邱출신 53세▲海士6기▲美海軍大、海兵여단장▲海域사령관▲합대부사령관▲해군교육단장▲해병사단장 ▲해군 제2참모차장▲中將예편

유엔 北傀要員 美、再入國거부

吳남철事件관련

【유엔본부AP=聯合】미국은한 북괴외교관의 미국여인추행미수사건과 관련、유엔주재 북괴대표부에 대해 압력을가중시키고 있다고 북괴대표부 부대표전재홍이12일밝혔다。

전재홍은 이날 기자에게미국무성이 해외여행을하려는 4명의 북괴외교관들에 대한 재입국비자의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사태가 최근 수일동안에 악화됐다고 말했다。

오늘 黨政회의

정부와民正黨은 13일 하오2시 民正黨 중앙당사에서黨政책조정회의를 갖고 정부의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에대한 의견을 교환할예정이다。

民正黨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및 총통화증가율、수출목표액등 정부의 경제정책전반에대해 黨의의견을 제시할것으로 알려졌다。

地平線

고장난 소련의 핵추진첩보위성 코스모스1402호의 원자로잔해가 우리나라에 추락할 확률은 1만분의1이라고 한다。정부당국이 발표한 방사능방재대책을 보면 파편이 떨어질 경우 2㎞이내의 주민들은 지하나 실내로 대피하고 노출된 피부는 중성세제로 즉각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핵폭발위험이 없으므로 코스모스 위성의 파편 추락을 지나치게 겁낼 것은 없겠으나 이 기회에 한 상식으로 핵폭발물이 떨어질 경우의 피해상을 알아 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이웃 나라 어느 TV에서 방영한 「만약 핵폭탄이 떨어졌을때 당신은 살아남을수 있을까」를 예로 들어 본다。ICBM등 전략핵병기의 현탄두수는 미국이 9천2백개、소련이 7천개다。여기에 다른 전술핵을 합한 총 폭발력은 약 4만 메가톤。TNT화약으로 환산할때 전인류를 몇번 없앨수 있는 위력이다。한 사람당 3톤의 TNT가 배당된 꼴이기때문이다。▼이가운데 1메가톤의 수소폭탄이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하면、대낮에도 爆心에서 20㎞떨어진 지방까지 閃光이 번쩍한다。이때 모든 사람의 눈은 한동안 멀어 앞이 안보인다。안경을 낀 사람이 직접 광선을 보았을 때는 눈의 망막이 타서 실명하게된다。태양만큼 강력한 빛을 내는 火球에서 地表에 수천도의 熱線을 照射한다。爆心에서 1.5㎞의 건물이나 사람은 아에 녹아 없어지고 반경10㎞에선 10집에 1집꼴로 불이 난다。반경8㎞이내 사람은 노출된 피부에 2도 화상을 입는다。▼爆風은 4·6초후 반경3㎞안의 건물을 모두 파괴해 버린다。致死量을 넘는 1천래드이상의 放射線이 2㎞이내를휩쓸며 37초후 火球는빛을잃지만 殘留放射能이생겨 죽음의 재가 1백㎞까지 번진다。이재를 맞은 사람의 50%는 죽는다는것이다。가상된 얘기이기는 하나 너무 어마어마하기만 하다。지금 지구위를 돌고있는 人工衛星이나 그破片은 1만2천개나된다。▼78년 캐나다에 떨어져 放射能汚染으로 말썽을 일으킨 소련위성은 코스모스 954호였다。이번것은 1402호란는데 소련은 核推進 인공위성을20개나 더 띄우고있으므로 宇宙公害는 보다 심각해질지 모른다。코스모스1402호가 우리나라에 떨어질 확률은 극히 희박하고 방사성물질이 넓은 지역에 희석되어 분산될것이기 때문에 방사능피해는 거의없다는 전해들이다。하나 有備無患이 제일이다。核피해를 똑바로 인식、대비케하여 피해를 입는일이 추호도 없도록 누구나 바라고 있다。

社會漫評

「눈치發達」 世界 第1位…

한국일보 533-2361

前期大 상황 10면에

533-2361 구독신청은

한국일보
우리의 재캐나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충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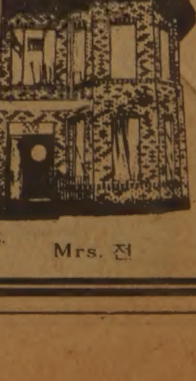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사업체
매매 알선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친절히 봉사합니다
(몰게지 상담)
888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의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의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韓·日공동성명 全文

1、나까소네·야스히로 日本國총리대신과 영부인과 함께 대한민국정부의 초청으로 1983년1월11일부터 1월12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을 공식방문하였다。

나까소네총리대신과하의 방한에는 아베·신따로 외무대신, 다께시다·노보루 대장대신, 후지나미·다까오 관방부장관, 야스이·겐 日韓의원연맹회장외수명의 국회의원및 기타일본국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수행하였다。

2、大統領과 總理大臣은 매우 정중하고도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頂上會談을 가졌으며, 국제정세와 양국관계및 기타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교환과 건설적인 토의를 가졌다。

3、대통령과 총리대신은 韓·日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이념을 추구하는 隣邦으로서 상호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는것이 양국민을위하여 이익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양국의 지도자는 금번 총리대신의 訪韓이 일본국총리대신에 의한 실질적으로 첫번째의 공식방한이라는 점에서, 1965년 양국간의 국교정상화에 이어, 양국간의 우호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里程標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4、대통령과 총리대신은 최근의 국제정세에 관하여 격의없는 의견교환을행하고, 특히 韓半島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의유지가 일본을 포함한 東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緊要하다는 점에대하여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지역의 평화와 안정및 번영을위하여 금후에도 상호노력해 나갈것을확인하였다。

총리대신은 全대통령이 제창한 南·北韓 당국최고책임자회담개최제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등의 대화노력을 지지하고, 韓半島를 둘러싸고있는 현하의 준엄한 정세하에서 한국의 防衛노력이 그러한 대화노력과 더불어 韓半島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 하였다。

5、나까소네 총리대신은 한국이 제5공화국의출범이래 全대통령의 탁월한 영도하에 정치·경제·사회등제반분야에서 꾸준한발전을 이룩하고있음에 경의를 표하였다。

총리대신은 일본이 세계평화와 번영을위하여 그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수행할것임과, 특히아시아 제국과의 관계를중시하여 나갈것임을 표명하였다。

대통령은 총리대신의 그와같은입장을 높이평가하고 금후일본의 국제적역할에 기대를 표명하였다。

6、대통령은 총리대신에게 1982년7월31일 瀛海기자회견에서全대통령이 밝힌 太平洋頂上會談구상을 설명하였으며, 총리대신은 대통령의 설명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국의 지도자는 太平洋지역내 제국간의 점증하는 상호의존관계와 이 지역의 급속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留意하고, 이들 제국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

7、대통령과 총리대신은 양국관계 전반에관하여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신뢰와 호혜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국간의 선린우호관계가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되어야할 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의 지도자는 정부, 국회및 민간차원에서 양국간의 각종 경로를통한 폭넓은 대화와 교류를 활발히 촉진시킴으로써 諸分野에 걸친 양국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하기로하였다。양국의 지도자는 韓·日間의 무역문제, 在日한국인 처우문제, 漁業문제등에관해서도 우호협력정신으로합리적인 해결을 찾아내기위하여 의견교환을하였다。

8、대통령과 총리대신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양국간에 교섭하여 온 經濟協力문제에 관하여 진지한 토의를 가졌다。

대통령은 한국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의 전망에 관하여 설명하였다。총리대신은 동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경제사회개발프로젝트에 대하여 일본의 경제협력 기본방침하에서 가능한 한 협력을 행할 의도가 있다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구체적인 협력의 방안으로서 年次베이스의 長期低利의 政府借款을 포함한 각종의 자금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양국의 지도자는 그 제일보로서 금년도의 円借款을 구체화시키기위해 조속히 양국정부간에 협의를 행하기로 합의하였다。

9、대통령과 총리대신은 양국간에 産業技術협력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데대하여 의견의 일치를보았다。

10、대통령과 총리대신은 국민적기반에 입각한교류의 확대가 장기적인관점에서 양국관계의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데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學術·敎育·스포츠등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11、대통령과 총리대신은 금번 총리대신의 訪韓을 계기로 양국지도자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총리대신간의 직접대화를 상시 가능케하는 전화, 기타 적절한 回線을 가능한 조속히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12、나까소네 총리대신은 금번 訪韓중 全斗煥대통령내외분과 한국국민이 베풀어준따뜻한 환대에대하여 심심한 謝意를表하였다。

총리대신은 대통령내외분께서 편리한 시기에 國賓으로 일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 하였으며, 대통령은 同 초청을기꺼이 수락하였다。방문시기는 금후 외교경로를통하여 협의, 결정하기로 하였다。

“새次元의 韓·日관계확인”

日本언론, 兩國정상회담 대대적보도

요미우리(讀賣)、아사히(朝日)등 일본의 주요신문들은 全斗煥대통령과 나까소네수상과의 韓·日정상회담을 1면톱으로 해설과 함께 크게 보도하고 韓日정상회담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韓日관계를 재확인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신문들은 韓日정상회담에 대해 「韓日관계의 새스타트, 40억달러 經協타결」(讀賣), 「신차원의 韓日관계를 확인, 日과거의 관계반성」(朝日), 「韓日새로운 우호의 일치」(産經)라는 등의 표제를 달고 韓日관계의 신시대개막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2면 해설에서 『韓日양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 金大中, 교과서문제, 經協문제등으로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대국적인 견지에서 정상화하자는데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측이 韓日정상회담에서 安保를 중시한 韓·美·日의 3각 안보체제의 긴밀화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대해 日측은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이를 부인하고있다。

1차정상회담결과에 대해 自民黨과 民社黨등 여당은 대체로 긍정적평가를 하고있으며 民社黨의 사사끼(佐佐木) 위원장은 『1차 韓日정상회담의 결과를 환영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韓日간의 우호촉진이라는 견지에서 도움이 되는 회담』이라고말했다。【東京=宋孝彬특파원】

SS20減縮分 파괴검토

蘇, 나토와 保有數합의할 경우

【모스크바AP聯合】소련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상에 따라 그들의 유럽배치중거리SS20 미사일을 1백62基로 감축할 경우 감축되는 SS20미사일을 분해, 파괴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소련을 방문중인 美의회사절단이 11일 말했다。

13인의회사절단은 이날 제네바 전략무기감축회담(START) 소련측 수석대표 빅토르·카르포프및 중거리미사일감축협상 수석대표 유리·크비친스키와 회담한 후 이같이 전했다。

이들 소련군축협상 대표는 크렘린 당국이 유럽겨냥 SS20미사일을 철거한후 파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蘇聯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의 중거리미사일 감축제의에 대한 나토측의 반대의견에 신축성있는 자세를 취할것으로 보인다。

의회사절단장인 톰·랜토스(民·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소련군축대표들이 파괴할 SS20미사일의 숫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자신은 「그들이 이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아프간北部에 强震 2천여명 사망한듯

【이슬라마바드AP=聯合】지난해12월 2천7백여명이 사망한 터널참사가 발생했던 아프가니스탄 북부 바글란省에 또다시 강력한 지진이 엄습, 최소 4백명내지 최고2천여명이 사망한것같다고 파키스탄에 뒤늦게 도착한 보도들이 11일 전했다。

◇「나는 탱크」로 불리는 蘇聯의 MI24 힌드 장갑헬리콥터。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한 대변인은 16기의 레이저유도탱크공격미사일을 장비한 이티타늄장갑헬機가 나토에대한 蘇聯圈의 주력무기가 될것이라고말했다。【뉴욕10일AP電=聯合】

3國회담 急進展기미

레바논、美側토의 방식수락

【베이루트·텔아비브聯合】레바논·이스라엘·미국 3국회담의 의제의 우선선결문제를 둘러싸고 난항을거듭해온 레바논·이스라엘·미국 3국회담은 레바논정부가 11일 「의제의 무순위토의」방식을 취하자는 미국측의 최근제의를 수락함에따라 급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와동시에 3국회담의 미국측대표단장인 드레이퍼중동특사와 하비브 美중동특사는 이날하오 거의 동시에 텔아비브에 각각 도착, 레바논의 미국측타협안 수락결과를 통보하고 「타결」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모든 레바논주둔 외국군철수를 목표로한레바논 평화회담은 회담개시 약2주만에 활기를찾게됐으며 따라서 레바논분쟁의 조기타결전망이 한층 짙어졌다。레바논·이스라엘·미국 3국은 지난해12월28일부터 레바논의 할데와 이스라엘의 키리아트 시모나를 오가며 지난10일까지 모두 다섯차례의 회담을 가졌으나 의제우선 순위를 둘러싸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회담은 완전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美 84년 國防費 대폭 감축

國防省, 백악관案 4%수락

【워싱턴AP·UPI=聯合】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은 11일 예산적자를 줄이려는 백악관예산당국의 끈질긴 압력에 굴복, 84회계연도 국방예산 2천8백47억달러중 4%인 1백13억달러를삭감하도록 레이건대통령에게건의했다고발표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와인버거국방장관의 예산삭감건의를 수락했다고 말하고 국방예산삭감은 방위비의 지출을 지연시킬뿐 국가안보를위태롭게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나까가와 自殺로 판명

自民黨총재 落選·持病등 비관

【東京=宋孝彬특파원】작년11월 自民黨총재선거에 나섰던 나까가와·이찌로(中川一郞·57)前科技廳장관이 심근경색으로 급사한것이아니라 사실은 목매달아 자살했음이 11일 밝혀져 日本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홋까이도(北海道)경찰은 새해인사차 선거구에 내려간 나까가와씨가 삿뽀로파크호텔에서 목을매달아 자살했음을 확인했으나 그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런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까가와씨의 자살동기에 대해 持病과총재선거에서의 낙선에의한 빚더미와함께 피로에의한 정신이상이 아닌가하고 측근들은 추측하고있다。

韓日不便관계解消 佛르·몽드紙

【제네바=聯合】프랑스의 르·몽드紙는 11일 나까소네(中曾根) 일본수상이 한국·미국·일본간의 3國협력관계를 증진하기위해 한국을 방문중이라고 보도했다。르·몽드紙는 이날 東京특파원발로된 『나까소네수상의 이번訪韓으로 韓·美·日3국간의 협력관계가 증진될것으로 보인다』는 제목의 장문기사에서 그와같이 말했다。르·몽드지는 이어 美國측은 아시아에서의 反蘇정책을 공고히 하기위해 이같은 3국간의 지역적 협력을 크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聯合】숄츠美국무장관은 10일 나까소네(中曾根) 일본수상의 한국공식방문에 논평하면서 美정부는 韓日간의 오랜 현안인 경제협력문제가 타결됨으로써 한일관계가 개선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인공심장 클라크씨 2、3週내퇴원가능

【솔트레이크시티(유타州)AP聯合】세계최초로 인공심장을 영구이식받은 바니·클라크씨(61)는 현재 상태로회복된다면 2~3주내에 퇴원할수 있을것이라고 한 담당의사가 12일밝혔다。의사들은 또한 클라크씨가 발걸음을 옮기는데 알루미늄보조장치를 사용하고있다고 말하고 그의 상태도 매우 호전되고 있다고 전했다。

社說

次元높은 友好 定立

—韓日頂上회담과 共同聲明을 보고

보다나은 「善隣友好관계」의 基盤을 새로 부각시키면서 全斗煥대통령과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日本首相간의 共同聲明이 12일자로 발표되었다。聲明은 나까소네首相의 첫번째 公式訪韓을 가리켜 「1965년 양국간의 國交正常化에 이어 양국간의 友好協力을 더욱 증진하기위한 중요한 里程標가 될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사실 이번 韓日頂上會談은 지난날의 유사한 접촉과는 판이하게 未來指向的으로 국제정세와 양국관계및 기타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건설적인 토의」를 진행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自由와 民主主義란 공통의 理念」을 추구하는 一衣帶水之間의 隣邦으로서 우선 국제정세에 관하여 기본認識의 일치를 보여주었다。

즉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定의 유지가 日本을 포함한 東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에 긴요」함을 확인한데 입각하여 日本측은 全대통령이 제창한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등의 對話노력을 지지할 것을 표명하고 특히 「韓國의 防衛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게한다。

나까소네首相은 또 금후 日本의 外交政策에 관하여 「國際的役割」의 수행이란 새로운 開眼을 밝혔는데, 이는 우선 太平洋지역내 여러나라간의 相互依存관계에 어울리는 적극적 協力증진의욕을 내다보게하였다。

가장 관심은 韓日관계에 관하여 全대통령과 나까소네首相은 「상호信賴와 互惠평등의 정신」에 따른 「善隣友好관계가 새로운 次元에서 발전되어야 할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이는 양국간의 각종 경로를 통한 對話와 交流의 확대 그리고 貿易문제, 在日韓國人處遇문제, 漁業문제등에 걸친 합리적 해결이 구차스러운 근시안적 이해타산을 넘어 經綸있는 新局面開拓노력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할것이라는 높은새次元의 合意成立이라고 관측하고 싶다。

당면한 주요 관심사인 經濟協力문제에 관해서는 韓國의 經濟社會開發프로젝트에 대하여 日本이 「長期低利의 정부借款을 포함한 각종의 資金協力」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하면서 原則에 완전합의를 보았으며 어제 있은 양국外相회담서는 이를 최종적으로 타결, 총액40억달러(ODA자금18억5천만달러·수출입은행자금21억5천만달러)를 7년간에 걸쳐 韓國에 제공키로 합의했다。産業技術協力의 확대도 그 내용과 규모는 확실치않으나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있다。

共同聲明은 「국민적 기반에 입각한 交流」의 확대에 언급하면서 學術·敎育·스포츠등 文化交流의 가일층 활성화를 기대케했다。文化交流의 증폭은 違和感의 해소와 상호理解의 증진을위한 필수적 요청이다。

이경우 현대는 광범한 국민대중이 外交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하는 세칭 「퍼블릭·디플러머시」의 도래가 실감되는만큼 大衆媒體를통한 견해및정보소통이 진일보중시되어야 할것으로 믿는다。그리고 韓日관계의 새次元에 관해서는 「정부와 정부」간의 교섭에 自足하지않는 「국민과 국민」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마련이다。「마음의 交流」의 착실함을통해 지난날의 온갖 응어리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共同聲明은 나까소네首相이 全대통령 내외분의 公式訪日을 초청했으며 또 그 초청이 기꺼이 수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그 실현은 현재의 온갖 懸案의 해결과 더불어 국민心情面의 整地作業 일단락을 전제로 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상징적 의의를 지니게 되리라고 展望한다。

그밖에도 공동성명은 양국 指導者가 太平洋정상회담구상과 관련, 域內제국간의 協力관계증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했고, 신속한 直接對話를위해 常時전화를 조속히 개설토록했음을 밝혔다。

총체적으로 이번頂上회담과 나까소네首相의訪韓은 日本의 새 進路가 自由陣營의 一員답게 보다 뚜렷한 國際的責任을 자각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時點에 이루어진 것이다。그의 訪美에 앞서 韓日관계가 상호존중의 對話와 協力의 새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평가하게 한다。環境認識의 일치와 信義를 바탕으로 情勢변화에 대한 슬기로운 공동對應이 가능하도록 日本측의 善隣協力 「구체화」조치가 前向的 관심사로 부각된다고 볼것이다。참된 韓日 友好의 새章을 펼치기 위해서다。

外貨 절약하는 風土

—海外旅行에 浪費 삼가토록하자

50세이상의 해외 관광여행 자유화 이후 해외나들이 바람이 예상되고 있다。관광업계의 짐작으로는 올해에 약 2만5천명이 「50세이상 여행자유화」의 혜택을 나설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같은 숫자는 외환은행에 예탁된 여행적금 가입자수에 따라 짐작된 것이다。

우리의 해외여행 바람은 이미 재작년부터 두드러진 현상이다。정부가 81년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을 펴면서 부터의 일이다。81년에는 한해전보다 해외여행자가 28·7%, 82년에는 16·2%(11월말현재)나 껑충 뛰었다。

전체적인 해외여행자의 증가추세에 비추어본다면 올해부터는 더 급격하게 해외나들이가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덩달아 해외나들이에 뿌리는 달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있다。81년만해도 씀씀이 자체는 늘지않아 총지출이 26% 늘었지만, 82년 들어서는 나들이가 늘어난데다 씀씀이 자체도 늘어났다。

한 중간집계론은 여행자 한사람의 씀씀이가 평균 2백52달러가량 늘어 82년에는 1천3백41달러를 갖고나갔다。

이와함께 우리의 「나들이 무역」은 적자로 뒤바뀌고 있다。81년까지만해도 2천만달러쯤의 흑자였던게 작년엔 1억2천만달러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해외나들이 바람이 이러한 적자추세를 개선하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것은 자연스런 걱정이 아닐수 없다。

당국은 이런 전망에 대비해서 해외여행경비 절약책을 마련하고 있다。일반해외여행자에게 3천달러가 넘는 「추가경비」는 아예 인정하지않고 관광여행에도 한사람앞에 3천달러, 부부동반엔 4천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물론 여행의 자유는 현대시민의 기본권의 하나요, 여행자유화가 뜻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전제로 하더라도 경비절약을 내세우는 당국의 입장은 당연한것이라고 하겠다。

작년 3월 민정당에서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 평균 4백9달러50센트를 쓰는데 비해 우리는 외국에서 그 2배가 훨씬 넘는 평균1천달러를 쓰고있는 실정」을 문제삼은 적이 있었다。

해외 나들이의 자유화가 거대한 국제화시대에 살아남기위해 갖가지 유익한 기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특히 국제무역에 생존의 큰부분을 기대고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3백수10억달러의 빚을 짊어지고있는 우리로서는 달러 한장이 피한방울보다 귀하다는 자세가 급하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여행자유화가 우연히도 세계관광업계의 불황기에 시작되고있음을 신중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씀씀이를 아끼고, 70년대 무분별했던 투기붐처럼 분별없는 나들이 바람을 일으켜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게 79년1월부터 해외관광여행을 자유화한 臺灣도 모든 경제적환경이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유리하다는것을 염두에 둬야한다。

재무당국의 외환규제뿐만아니라 귀중한 달러를 뿌리고 다니는 변칙여행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아울러 최근 두드러지고있는 「외화밀반출」을 철저히 단속하고 않으면 여행자의 행렬이 어느만큼 될것인가에 따라 보다 융통성있게 달러를 아끼는 정책방향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세계에서 나들이를 가장 많이 하는 미국은 동시에 세계에서 관광객을 가장 많이 맞는 나라다。세계에서 해외여행에 가장많은 돈을 쓰는 서독사람은 소득이 우리의 10배가까운 부자다。

모처럼의 해외여행자유화가 어울리지않는 허세로 그치는 일이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된다。지금은 「국민」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때임을 잊어선 안된다。

記者의 눈

돈과 메달

대한사격연맹은 경기력향상을 위해 메달획득선수에 최고5천만원에 월1백5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지원대책을 11일 발표했다。

국내스포츠계에서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경기력향상의 인센티브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환영하는 눈치다。

스포츠전성시대임을 실감하게 된다。

67년 한국여자농구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했을때 朴信子선수가 5·16민족상 사회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나 아마추어규정에 묶여 상금 2백만원은 받지못했던 일이 있었다。

일부 인기종목 고교생스카우트에 1억원설이 나돌고있는 이때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국내 체육계에서 국위를 선양한 우수선수에게 연구비, 연금등 명목으로 보상을 실시한지가 오래됐다。

73년 사라예보 세계탁구대회에서 우승한 여자선수에게 승용차가 제공됐고 이번 뉴델리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중에는 각계로부터 받은 격려금이 1천만원을 넘은 선수도있다。

이미 아마추어리즘은 기준이 무너진지 오래이다。

아마추어란 어떠한종류의 물질적 보상없이 취미로, 자신을 위해서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많은나라에서 선수들을 국가가관장하며 특별훈련을 시키고, 아파트제공등의 보상을 하고있는것도 사실이다。

스포츠는 투자만큼 소득을 얻는 가장 솔직한 사업이라는 말이 있다。

투자=금메달의 등식이다。한 조사에 의하면 국가대표선수들이 은퇴후의 생활을 걱정하며 88%가 「사회가 생활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중 42%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면에서 볼때 사격연맹의 지원책은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일지 모른다。

그러나 두려운것은 눈앞에 걸린 상금때문에 운동하는 사이비 아마추어선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故李相佰박사는 『선수들이 금전에 비굴해지고 스포츠맨다운 활달한 기상을 잃고 있다』고 개탄한 적이 있다。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국가를 대표해 늠름하게 싸우는것을 최대의 명예로 생각하던 순수 아마추어의 정신이 금전때문에 퇴색하지 않기를 바란다。【金寶根기자】

政局往來

“좋은藥이 입에쓰다는 생각으로 議會관계 유지하고있다”

◆韓國의 超黨外交기술 도입했으면 나까소네 日本수상은 12일 상오9시30분 汝矣島의사당으로 丁來赫국회의장을 예방, 韓日의원연맹의 유대및 자신의 對議會觀등을 밝히며 30분간 환담했다。

丁의장은 이 자리에서 『나까소네수상이 全斗煥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를해 우리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면서 『이제 互惠평등의 입장이나 한국말과 일본말로 서로 얘기하는것도 괜찮을것 같다』면서 日語로 우리국회제도및 현황과 접견실에 걸린 歷代국회의장초상화를 소개。

이에 나까소네수상은 『본인은 선거를 14번이나 치러 의사당에 오면 친척집같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입장에서보면 의회는 어려운 곳이지만 역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代辯하고 정부를 감독하는 곳이니 「좋은 藥이 입에 쓰다」는 생각으로 對議會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또 『韓國의 超黨외교를기술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조크하면서 兩國의 귀중한 재산인 韓日의원연맹을 영원히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의。

이에 丁의장은 『韓日의원 연맹인사들은 1백% 진실과 성실로 대화하는 지성인의 모임』이라면서 『연맹이 韓日간의 架橋역할을 하도록 더욱힘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韓國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李載灐국회의장은 12일 상오 訪韓중인 나까소네수상을 수행한 야스이·겐(安井謙) 日本측 의원회장등 韓日의원연맹 日本측 의원들의 예방을 받고 40여분간 환담。

이자리에서 李회장은 『韓日의원연맹 日本측의 많은 노력으로 나까소네수상이 訪韓하게된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11일의 靑瓦臺만찬에서 나까소네수상이 정확한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야스이회장은 『나까소네수상은 작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시작,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달했으며 영어에도 능통하다』고 답변。

이날환담에서 日本측 의원들은 나까소네수상의 訪韓결과에 至大한 관심을 가진듯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을 한국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한국측이 『日本의 역대수상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이란 인상을 받았다』고 대답하자 만족한 표정을 짓기도。

◆호화판 개편대회…地自制에 暗影 民韓·국민당의 지구당개편대회에 침묵을 지켜왔던 民正黨은 11일의 총재회의에 이어 12일에도 「沈默」을 깨고 野黨의 일부지역구 개편대회를 다시檢討하여 주목。權翊鉉사무총장은 이날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수는 없지만 이웃 잔치가 우리잔치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예상된다면 입을 다물고 있을수도 없지 않느냐』고 전제한후 『특히 몇몇 지역구의 호화판대회는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내용을 알게되면 깜짝 놀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들이 집안잔치를 이같이 호화판으로 계속 치르게 될경우 지방의 農協조합장 선거나 유권자의 의식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지방자치제 실시는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서로 自重自愛하는 정치풍토가 아쉽다』고 慨嘆하기도。

◆民韓대회서 뿌리論, 자세論, 한참 12일의 民韓黨 서울 江西지구(위원장 高炳鉉의원) 개편대회는 오랜 黨僚출신의 지역구탓인지 축사에나선 인사들은 입을 모아 전통야당의 「뿌리論」에서 「자세論」을 내세우는등 「야당의 소리」가 高調。또한 「지방長征」에 나선 柳致松총재는 이날도 全北 任實·南原지구(李炯培의원)와 鎭安·茂朱지구(吳上鉉의원) 대회에 잇달아 참석했다。

이날 江西지구에서 劉沃祐、李泰九부총재는 전통야당의繼承性을 강력히 내세운뒤 『이제 民韓黨은 제1야당이 아니라 이 민족을 대변하는 唯一의 민족정당』이라고 주장。

吳洪錫중앙상무위의장은 『정치의속성이 거름이 되기보다는 꽃이 피기를 원하나 우리는 꽃보다는 거름이 돼야한다』, 林鍾基총무는 『後世의 史家는 우리의 忍苦의 노력을 평가할것』이라면서 在野의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辛相佑전사무총장은 『가장 좋은 독재정치보다는 가장 나쁜 민주주의가 낫다』는 仁村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무리 제약된 상황이더라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때 참 민주주의는 이땅에 뿌리를 내릴수 있다』고 새로운 자세의 정립을 강조하기도。

한편 20여명의 소속의원과 지방에온 柳총재는 치사에서 『가야할길이 아무리멀고 넘어야 할山이 아무리 험하더라도 국민적 요구를 충실하게 대변하겠다』고 다짐했다。

Happy Holiday Season

韓國料理의 傳統을 이어

韓國的인 멋을 겸비하게 된 토론토의 명물

한국관

※이미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기계로 뽑는 진짜 냉면은 역시 한국관!!

5주년 개업기념 봉사

기간 : 11월29일부터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곰탕 $3.25
냉면 $3.25
비빔밥 $4.00
육개장 $4.00

영업시간 : 오전11시~새벽1시까지

*돐잔치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
등 각종 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531-0277

名門大 일부學科 또 未達

前期大 원서접수마감 눈치受驗生 한꺼번에 몰려 큰혼잡

中下位圈 대학 志願率 높아

崇田大 무역학과 15.4對1로最高 서울大 최고는 美大 3.1對1

하오5시현재

◇마감직전「接受 滿員」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접수창구는 눈치를 보던 지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대혼잡을 빚었다. 고득점자가 많은 올해에는 예년보다 눈치작전이 더 심해 각대학은 마감시간에 임박해서 원서를 접수 처리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려야했다. 【하오5시 서울 Y대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83학년도 전기대학입학원서가 마감일인 12일하오6시까지 전국73개전기대학(11개교육대학포함)별로 접수마감됐다. 대입학력고사제도 실시이후 해마다 되풀이돼온 극심한 눈치작전이 더 심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11일까지 한산하던 각대학의 접수창구는 예상대로 12일 하오부터 크게 붐비기 시작, 큰 혼잡을 빚었다.

이날하오 5시 현재 접수상황을 보면 서울大등이른바 명문대학이 비교적 낮은지원율을 보인반면 중위권이나하위권대학들이 높은 지원율을 보였고 지방대학들이 예년보다 경쟁률이 조금씩 오른것이 특징이었다.

또 명문대학일 수록 미달과가 나왔으며 학과간의 지원율도 심한 격차를 보여 서울大는 96개모집단위중 30개가 미달이었는데 6시마감이끝나도 몇개학과는 미달현상을 면치못할것으로 보인다.

이날하오5시현재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崇田大 무역학과가 15.4대1로 가장 높았고 漢陽大 정외과가 12.8대1이었다.

서울大는 이날 하오5시현재 9천1백19명이 지원, 평균1.4대1의 경쟁률을보여 지난해 실질경쟁률1.35대1보다 다소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대학별로보면미대가3.10대1로가장높았고법대는1.76대1이었으며가정대·농대·의대간호학과등이 미달이었다. 학과별로는 미대 서양화과가 5.37대1로 가장높았다.

미달된 학과는 96개모집단위중30개로가정대에서가정관리학과등 3개학과, 공대 건축학과등9개과, 농대농학과등 11개과, 사대국어교육과등 5개과와 약대등이다.

서울大 한관계자는 공대와 농대의 경우 지난해 대학 또는 계열별 모집에서 학과별 모집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지원에 활용할 정보의 부재때문인것같다』고 분석하고 『최종마감까지는 대부분의 학과가 모집인원을 넘을것으로보나 미달되는 일부학과가 생길것』이라고 말했다.

高大는 이날 하오5시현재 7천9백20명이 지원, 1.68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많은지원자가 몰려있어 작년보다 경쟁률이 높을것으로보인다.

모집단위별로보면 정외과가 78명모집에 3백3명이 지원, 3.9대1의 가장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독문과 노어노문과와 농화·임학·식물보존학과등이 미달상태다.

延世大는 하오5시현재 62개학과계열중 10개 학과정도가 미달상태고 전체적으로 8천1백91명이 지원, 평균 2대1을 밑도는경쟁률을 보였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음대교회음악과로 3.5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경제, 경영, 영문, 의예과등도 모집인원을 넘어섰다.

梨大는 하오5시현재 4천9백80명이 지원, 정원을 약간넘어섰는데, 52개과 계열가운데 절반인 15개학과가미달이었다.

음악, 미술, 체육계통학과는 거의가 정원을 넘어선데 비해 어문관계학과와 사범대등에는 눈치작전탓으로 지원자가 접수를 시키지않고있어 대부분 미달상태였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는 성우예술과로 65명정원에 1백74명이 지원, 거의 3대1에 육박했다.

淑大는 하오5시현재 2천3백65명이 지원, 38개학과중 22개학과가 모집인원을 넘어섰는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체육교육과로 모집인원47명에 1백52명이 지원, 3.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淑大의경우 경제·경영계통학과와 음악대·약대·미대등은 이미 모집인원을 넘어선 예년에 어문계학과와 자연계학과가 저조한 지원율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 1.2대1에 미달학과가 많았던 成均館大는 이날 지원자가 몰려 하오 5시현재 4천2백77명 모집에 1만4백45명이 지원, 평균2.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외국어大는 하오 5시현재 5천4백78명이지원, 평균1.56대1의 지원율을 보였는데 59개학과중 47개학과가 정원을 넘었으며 나머지 학과도 대부분 모집인원을 육박, 미달학과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9개학과가 무더기로 미달되었던 慶熙大는 이날 하오5시현재 1만2천4백82명이 지원, 평균 2.74대1의 비교적 높은지원율을 나타내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양상을 보였다.

大入학력考査 3백점이상 서울31·地方69%

83학년도 학력고사에서 3백점이상 고득점자가 서울31%, 지방 69%로 분포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82학년도의 서울47.6%, 지방 52.4%에 비해 서울의 고득점자 비중이크게 떨어진반면 지방은 높아진것이다.

12일 문교부에의하면 83학년도 학력고사 3백점이상 득점자 6천3백78명중 지역별 득점분포는 서울 39%, 부산 12.2%, 大邱 11.4%, 전남 8.09%, 경남 6.88%, 전북 4.84%, 충남 4.13%순으로 나타났다.

응시자에대한 고득점자 비중은 부산1.46%, 서울 1.35%, 大邱 1.21%, 濟州1.3%등으로 이들 4개지역만이 전국 평균 0.9%선을 웃돌았다.

美서온 콘테이너서 拳銃2개 발견

11일 하오5시30분께 서울 城東區廣壯洞218 대한제지공업사 (사장 楊永鶴·45) 야적장 컨테이너속에 권총2자루가 들어있는것을 이회사인부 金正燦씨(45) 가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컨테이너는 지난해 10월9일 미국의 「하와이안가든」종이수출회사에서 수입, 이날처음 풀것인데 압축된 파지 더미리속에서 38구경 리볼버 권총1자루와 종류를알수없는 31구경 권총1자루가 함께 들어있었다는것.

在日동포 地位개선 訪韓 日수상에公翰 한국人權 옹호聯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회장 李在㫤)은 12일상오 방한중인 나카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日本수상에게 公翰을전달, 在日70만 교포들의 법적·사회적 지위개선등을 촉구했다.

한국연맹은 이날 駐韓日本대사관을통해 나까소네수상에게 전달한 이公翰에서 『日本은 과거 한국을침략, 수탈한 역사적 사실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의미에서도 일본인들이 在日동포들에 대한 사회적·민족적·경제적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이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개선해줄것』을 요구했다.

民願서류 31種수수료 최고 1백% 引上

전국의 각종 민원서류 수수료가 금년들어 최고 1백%까지 인상됐다. 민원서류는 모두 1천2백1종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민원이 가장 많은 31종의 수수료가 인상조정된 것이다.

인상된 수수료중 각종허가신청이나 변경등록은 종전5백원에서 1천원으로 1백% 인상됐고 인감증명 수수료는 2백원에서 3백원으로 50%올랐다.

수수료인상으로 직할시와 시·군의 수입이 늘어나게돼 大邱직할시는 지난해에 비해 수수료수입이 7%가 늘어나 17억2천여만원으로 예상되고 각시·군도 5~7%가 늘어나게됐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번수수료인상은 지난78년이후 5년만에 있는것으로 지역간에 균형을 이루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釜山시는 지난해 수수료 수입이 23억원, 大邱 10억원, 仁川 7억원이었다.

인상된 민원서류 수수료는 다음과같다. (괄호안은종전)

▲건축물개축신고=1천원 (5백원) ▲옥상광고물및야립광고물 변경허가=2만원(1만원) ▲옥외광고물신규허가=1만원(5천원) ▲약국개업신고=1천원 (5백원) ▲행정서사업허가신청=1천원 (5백원) ▲공장시설등록허가신청=1천원 (5백원) ▲유기장영업변경허가신청=1천원 (5백원)

鐵道廳長 사표

安昌和철도청장이 12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제출했다.

安청장은 대검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철도청내 비위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것으로 알려졌다.

生理중 소매치기女人에 無罪

서울刑事지법 치료監護청구만 받아들여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李永範부장판사)는 12일 생리기간중 소매치기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梁海順피고인(39·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치료감호청구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梁피고인이 죄를 범한사실은 인정되나 공립정신병원 감정결과 생리기간중 일시적 정신병상태로인해 사물판단능력이없는 심신상실자로 판명됐기때문에 처벌할수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한편 산부인과및 정신과의사들은 여성들의 생리기간중에는 여성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깨져 누구나 흥분, 심리적불안, 신경질등의 증세를 보이게되는데 정도가 심할경우에는 정상적판단력을 잃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도 있으나 생리가 끝나면 이같은 현상은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韓昇熙 피고인 징역5년 宣告

미스서울 拉致사건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는 12일 미스서울 납치소동사건과관련, 구속기소된 韓昇熙피고인(28)에게 밀항단속법및 여권법위반죄등을 적용, 징역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韓피고인과미스서울 李淳福양(28)의 여권을 위조해준 李淑피고인(53)에게는 징역3년을, 姜仁泰(28), 朴潤澤(50), 金昌經(44) 피고인등 3명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韓피고인은 지난해 9월5일 李淑피고인을 통해 신과 李양의 여권을 위조, 金浦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뒤 납치소동을 벌이다가 강제추방당해 지난해 9월27일 검찰에 구속됐었다.

한편 李양은 금명간 미국에서 추방될것으로 알려졌다.

전국賃金 실태조사

勞動部, 격차완화·低賃해소 위해

노동부는 임금격차와 저임금을 없애기위해 오는20일까지 전국사업체에대한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키로했다.

노동부는 이기간중 종업원 1백인이상인 4천5백여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종간 학력간 임금실태를 조사, 올해의 격차완화목표에 미달하는 사업체를 중점지도해 나갈계획이다.

노동부의 올해 임금격차완화목표는 생산직과 관리직의 비율이 1백대 1백5, 중·고·전문대·대졸의 비율은 1백대 1백20, 1백55, 2백10이다.

노동부는 또 조사결과 대졸자의 초임이 정액 급여액을 기준해서 이공계가 25만원선, 인문계가 24만원선일경우 이상등 고임금관리직과 함께 임금을 동결 시키거나 최저율을 적용해 인상토록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섬유, 의복등 10개 저임금업종의 저임금개선을위해 지역별로 업종별 저임금기준을 오는 29일까지 확정토록한후 저임금 개선대상업체를 선정, 분기별로 개선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潤相군 살해朱피고 再審청구 기각

서울 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辛泰根 부장판사)는 12일 李潤相군 유괴살해사건의 朱永炯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朱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뒤 지난해 12월10일 1심법원인 서울형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半한국인」

한국어로 일하는 日本人 사노氏

休暇때마다 서울찾아…김치도 즐겨

외국땅에서 동양사람을만나면 처음에는 얼굴이 노랗고 키가 작달막한 공통점때문에 일단 친근감을 갖는다. 그러나 상대가 日本人임이 확인되는순간 이질감을 느낀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나라라는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사노·료이찌(佐野良一·33·사진)란일본사람을 만나보면 지금까지 일본사람에대해 가졌던 생각이 다소호트러 진다. 이런 일본사람도 있는가 싶어서다.

생김새가 남달라서 그렇다는것이 아니다. 크지않은 키, 호리호리한 몸매, 얼굴생김새등은 전형적인 일본사람이다. 사는곳도 도쿄며 평범한 월급장이다.

문제는 그가 근무하고있는 회사가 한국인회사며 한국에대한 사랑과 지식이 남다르다는 점에있다. 물론 한국어실력도 서류를 꾸밀 정도다.

「半한국인」이라는 본인의말이 아니더라도 지난79년이래 매년 신정및 여름휴가때면 한국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의 한국에대한 사랑을 엿볼수 있다. 금년에도 1일부터 4일까지 한국휴가를 즐겼다.

그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것은 오묘미술대를 졸업하고 우연히 三中堂 도쿄지사에 근무한 때부터다. 처음 접하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 특히 음악이 그를 사로잡았다. 77년 처음 한국출장을 다녀간후 한국어를 배울것을 결심, 3년동안의 저금을 몽땅 털어 79년부터 1년간 서울大 어학연구소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이때부터 6개월마다 한국을 찾지않으면 못견디는 「병」을 얻었다.

이같은 한국행병은 여동생 사노·마사꼬양(佐野雅子·31)에게옮겨졌다. 그녀는 成大가정과에서 2년동안 한국요리를 배우고 돌아가 현재 재일동포단체의 한국요리강사로 일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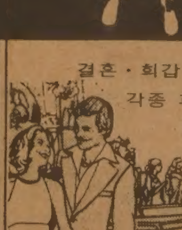
『한국의 무엇이 그리 좋으냐』고 물으면 서울의 겨울, 푸른 하늘, 北岳과 남산, 그리고 서울을 가로지르며 유장하게 흐르는 한강이 한폭의 동양화처럼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대답한다.

『여동생이 늘 김치를 담그니까 이웃에서 우리를 한국사람으로 알아요』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을 계기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될 일본이 사노氏처럼 한국을 구김살 없이 이해한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될지도 모른다. 【文昌宰기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한국인이 경영하는ㅁ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Restaurant
■Free 주차장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주문시 배달합니다.
■매일(년중무휴)
☎ 오전 11:30~새벽 1:00까지
538 St. Clair W. 656-0456
(세인·클레어×베다스트)
유 창 준 654-6609

고향의 맛
서울 하우스
한식, 중국요리
— 각종 국수전문
일요일도 영업합니다
주7일 Open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15 BLOOR ST. W.
532-0602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현재 주류면허 신청중.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제(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서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928-3335(B), 532-9581(R) 유 승 민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들기사친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Minit-tune Gain gas station
We do all repairs ◉334 Dundas St. E. Mississauga
전화: (B)273-3920 (R)273-9821 이태경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광고문의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완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여자 스토아헬퍼 구함
경험자 우대. 다운타운 지역.
전화 : 368-8834 (오전 11시반 이후)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아침8시부터 8시간 6일 근무.
전화: 923-3939

일본요리사 / 한국요리사 구함.
전화 : 923-3060 GRANADA 음식점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2살, 5살
전화 : 447-1460

토·일요일 주말헬퍼 구함.(Mac's Milk Store)
Eglinton East & Laird Dr.
전화 : 421-1089

도넛숍에서 저녁에 파트타임이나풀타임으로
일 하실분 구함.
전화: 690-3920 (B), 491-8734(R) Mr. 김

출퇴근하시며 베이비씨터 하실 분.
전화: 665-9585 Mr. Lee(오후5시30분 이후)

초저녁 사무실청소 하실분.
전화: 368-8421

도넛숍 헬퍼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2-0634 Mrs. 김

경험 많은 여자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오후5시~11시까지 하실분(토·일 포함)
전화 : 625-1620

출퇴근하실 베비씨터 구함.
스카보로 지역
전화: 266-6355

토요일도 광고접수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일보광고부

구 직

템프로리 메니저자리 원함.
◉유경험자.
전화: 762-7004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등불토요학교, ◉757-7828(김지현)
지원자격: 5학년~10학년. 영어·수학·한국어 ◉UT재학생과
졸업생 장소: Midland Ave. Collegiate Ins.(에그린톤×미드랜드)

바이올린 레슨.
푸로페셔널. 개인지도. All Level.
전화: 233-4200 Mr. Wong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Van트럭 82년도 GMC 회색
3,000Km-실내장식 완비
전화: 749-9687 Mr. 조

'81년도 Capri 4기통 AM, FM카세트.
Automatic 추렌스미션. Power 브레이크. 가격: $5,300
전화 : 536-8262(6시 이후)

스카보로에 있는 Bakery 매매함.
경험없어도 할수 있음.
주매상 : $3,500 아스킹 : $59,000
가격에 모든 도구 포함돼 있음.
전화 : 881-5186

Oakville 버라이어티 가게 매매.
아스킹: $60,000(스탁 포함)
전화: 844-2950 로레인 또는 버니

스카보로에 잘 꾸며진 일본음식점 매매.
한국음식점에도 잘 어울림
전화 : 755-3010(3pm-5pm) Fumi

뱅쿠버에 있는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0,000+스탁
토론토전화 : 282-8066(Mr. 리)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그로서리·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스킹: 3만6천+스탁.
전화: 820-7259

◉년매상: $107,000 Net Net Plus.
11개스토아 플라자내. 아스킹: $1,200,000.25%다운.
◉1.3에이커. 따로 떨어진 두빌딩.
빌딩안에 Becker's 스토아와 Self Serve 개스 스테이션이 있음. 아스킹: $380,000.년매상: $34,000. Net Net.
◉Yonge Street에
금방 완성된 플라자. 아스킹: $5,000,000.10% Return.
763-5555 Doris Burda
Cholkan Real Estate Ltd.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리스: 5년+5년. 아스킹: $10,000 or Best offer.
전화: 531-1023, 531-1005(Ralf)

Davenport & Christie. 3베드룸 타운하우스.
화장실2개. 센트럴·에어콘디션. 개스히팅.
황 순일 481-3443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도넛숍
매상으로써 캐나다에서 최고수준의 주 $10,000
아스킹: $350,000. 년순수입: $150,000.
◉드라이크리닝 디폿(Depot)
한달순수입: $1.500보장. 혼자서 6일 오픈. 아스킹: $23,000
◉후라이드 치킨
주매상: $7,500 아스킹: 195,000 년순수입: 약 $100,000
◉미스터 씨엄머핀
주매상: $7,000 아스킹: 185,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225-1204

가게를 파실려구요?
사람을 구하신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15.(1주일간)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3베드룸이나 1베드룸 타운하우스 렌트
즉시 입주가능.
전화: 532-9581(저녁7시 이후)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사무실 렌트.
연락처: 535-6004, 535-8801

미도파2층 렌트.(현재 입주 가능) ◉사무실과 살림
동시에 할 수 있음. ◉1Bed Rm. 화장실·부엌·사무실2개.
전화: 536-1692

1Bed Rm. 렌트(여성에 한함)
월: $130. 위치: Lawrence & Midland
전화: 759-3794 Mrs. 리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수)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솔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콘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배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춘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